차　　례

1. 우리 말 문화어의 억센 뿌리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민족을 특징짓는데서 언어가 노는 중요성을 헤아려보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그러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나섰는가.

그것은 첫째로, 지난 시기 우리 말과 글이 봉건통치배들과 사대주의자들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때문이다.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덮어놓고 큰 나라를 섬기면서 우리 말과 글에 어렵고 힘든 한자어와 외래어들을 망탕 끌어들이였다. 그들은 마치도 한자어나 외래어를 써야 유식한것처럼 생각하면서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멸시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였다.

둘째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책동하였기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말을《국어》라고 하면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말과 글을 영영 없애버리고 우리 인민이 단결하여 혁명투쟁을 벌리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을뿐아니라 말과 글까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어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것의 하나로 되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모국어말살정책을 강요한다.》

언어가 민족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는만큼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문제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과 직접 련관되여있었다.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진정한 민족적독립이 없이는 민족어의 자유로운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 우리 민족어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헤아리시고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항일혁명투쟁의 한 고리로 벌려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언어사상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등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가르치심에서 참다운 인민적인 교육을 실시하자면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있는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을 없애고 그들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해야 하며 특히 모든 청소년들을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이 사상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인민을 제놈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민족어말살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던 일제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 사상은 또한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러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 투쟁을 어떻게 이끄시였는가.

첫째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인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과 글을 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전하고 교양하는 목적은 로동자, 농민들을 깨우쳐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불러일으키는데 있기때문에 언제나 로동자, 농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들자신이 늘 쓰는 말로 선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 호상간에는 물론 유격근거지안의 아동단학교들에서 하는 수업과 인민들에게 하는 선전선동사업들이 모두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려운 한자말이나 까다로운 외래어들을 쓰지 않고 고유한 우리 말로 로동자, 농민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둘째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서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말과 글을 아무리 쉽게 다듬어놓아도 그것을 옳바로 쓰기 위한 혁명적기풍이 서있지 않으면 말과 글이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없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고 글 한자를 써도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대중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다.

셋째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속에서 우리 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유격대는 다만 적과 싸우기만 하는 군대인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교양하고 불러일으키는 조직선전자로, 교양자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우리 글부터 배워

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유격근거지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시고 아동단원들속에서 우리 말 교육을 강화하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수많은 신문과 잡지, 소책자들을 우리 말과 글로 발간하도록 하시였으며 이 사업에서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가혹한 민족어말살정책이 실시되고있던 때에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속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말이 더욱 활짝 꽃피게 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 말 문화어의 귀중한 뿌리인 빛나는 혁명적언어전통이 이룩되게 되였다.

그러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적인 언어전통의 기본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언어사상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민족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밀고나가야 한다는 사상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이 지켜졌으며 오늘과 같은 문화어로 활짝 꽃펴날수 있었다.

둘째로, 우리 말과 글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쌓은것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속에서 우리 말 교육,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의 발간, 혁명연극과 혁명가요를 비롯한 다양한 문예활동을 몸소 지도하시는 과정에 우리 말과 글의 주체적발전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쌓으시였다.

셋째로, 인민적언어규범이 마련되고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이 선것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몸소 인민적언어규범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주시고 말과 글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말 문화어의 빛나는 전통을 잘 알뿐아니라 그것을 대를 이어가며 견결히 옹호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2. 말뿌리와 합친말

단어는 뜻을 가진 작은 쪼각들인 형태부들로 이루어진다. 그 형태부의 하나로서 말뿌리가 있다.

그러면 말뿌리란 무엇인가.

말뿌리란 단어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형태부를 말한다.

그 례를 단어 《마당질을》에서 들어보자.

단어 《마당질을》은 세개의 형태부 즉 《마당》, 《질》, 《을》로 이루어졌다. 이 단어에서 《마당》이 빠지고 《질을》만 남는다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단어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마당》은 혼자서도 단어를 이룬다. 그것은 《마당》이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어에서 《마당》은 없어서는 안될 형태부이다.

우에서 본《마당질을》에서《마당》과 같이 단어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며 그것 없이는 단어를 이루지 못하는 형태부를 말뿌리라고 한다.

○ 맏오빠에게, 살림군들, 자랑스럽다

말뿌리는 자립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혼자서도 하나의 단어를 이루며 두개이상의 말뿌리가 합쳐서도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

례를 들어 단어 《강물》은 두개의 말뿌리 《강》과 《물》이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것이고 《혁명력사교과서》는 세개의 말뿌리 《혁명》, 《력사》, 《교과서》가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것이다.

이와 같이 두개이상의 말뿌리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를 합친말이라고 한다.

합친말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 말뿌리들이 토없이 그냥 합쳐서 이루어진것: 봄가을, 여기저기, 감돌다, 옳바르다, 새봄, 빨락종이

○ 말뿌리들사이에 토가 붙어서 이루어진것: 큰아버지 (《크다》의 《크》+토 《ㄴ》+《아버지》), 된장 (《되다》의 《되》+토 《ㄴ》+《장》), 길짐승 (《기다》의《기》+토 《ㄹ》+《짐승》)

○ 같은 말뿌리가 반복되여 이루어진것: 구석구석, 누구누구, 차근차근, 하나하나

합친말은 말뿌리와 말뿌리가 합쳐서 또 하나의 단어를 이룬것이기때문에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것과는 갈라보아야 한다.

《큰 공장》은 두개의 단어이지만 《큰아버지》는 한개의 단어이다.

《큰 공장》은 규모가 큰 공장이라는 뜻으로서 《크다》의 뜻이 살아있지만 《큰아버지》는 키나 몸집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님》이라는 뜻만 나타낸다. 다시말하여 아버지의 형님은 키나 몸집이 크지 않아도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큰아버지》는 공장이 크다는 《큰 공장》처럼 두개의 단어가 아니라 한개의 단어이다.

그러므로 《큰 공장》은 합친말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것이다.

련습

1. 단어 《햇곡식, 올사과》에서 말뿌리를 찾고 왜 말뿌리로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2. 합친말과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말의 차이를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다음단어들에서 말뿌리와 합친말들을 찾으시오.
   덧붙다, 돌미나리, 군입질, 짓부시다, 토끼우리, 집집, 건들건들, 날강도

3. 앞붙이와 뒤붙이

단어를 이루는 형태부에는 덧붙이도 있다. 덧붙이는 말뿌리에 덧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형태부이다. 덧붙이에는 앞붙이와 뒤붙이가 있다. 앞붙이는 말뿌리의 앞에 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형태부이고 뒤붙이는 말뿌리의 뒤에 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형태부이다.

례를 들어 단어 《맏아들》에서 《맏》은 말뿌리 《아들》의 앞에 붙어서 《맨먼저 태여난》이라는 뜻을 보태여주면서 《맨먼저 태여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또 하나의 새 단어를 만들어주었으며

단어 《손질》에서 《질》은 《행동》이라는 뜻을 보태여주면서 《손》의 뒤에 붙어서《손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진 또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주었다.

우의 례에서 《맏》과 같이 말뿌리의 앞에 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부를 앞붙이라고 하며 《질》과 같이 말뿌리의 뒤에 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부를 뒤붙이라고 한다.

앞붙이와 뒤붙이는 한개의 말뿌리에 각각 한개씩 붙을수도 있고 두개이상 붙을수도 있다.

《풋고추》, 《낚시질》과 같은 단어에는 앞붙이 또는 뒤붙이가 하나씩 붙었지만 《맏시누이》, 《생김새》와 같은 단어에는 앞붙이와 뒤붙이가 두개씩 붙었다. 《맏시누이》에서 《맏》과 《시》는 앞붙이이며 《생김새》에서 《ㅁ》과 《새》는 뒤붙이이다.

말뿌리는 혼자서도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만 앞붙이와 뒤붙이는 혼자서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말뿌리에 붙어서만 쓰인다.

앞붙이와 뒤붙이는 그 수가 말뿌리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하나의 앞붙이나 뒤붙이가 이 말뿌리에도 붙고 저 말뿌리에도 붙어서 수많은 새 단어를 만들어준다.

례컨대 앞붙이 《덧》은 《덧대다》, 《덧놓다》, 《덧붙다》, 《덧쌓다》, 《덧거름》, 《덧신》, 《덧버선》, 《덧저고리》, 《덧국》, 《덧창》, 《덧문》, 《덧이》와 같은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주며 뒤붙이 《이》는 《해돋이》, 《미닫이》, 《높낮이》,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손잡이》, 《벌이》, 《먹이》, 《걸음걸이》, 《앞붙이》, 《뒤붙이》와 같은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앞붙이와 뒤붙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앞붙이

강— 강다짐, 강추위, 강엿
군— 군더더기, 군소리, 군침, 군불, 군식구, 군입질
날— 날콩, 날닭알, 날강도
돌— 돌배, 돌미나리, 돌피
말— 말거미, 말벌, 말승냥이
뭇— 뭇별, 뭇매, 뭇새

수— 수매미, 수닭, 수병아리
시— 시누이, 시집, 시부모, 시어머니
생— 생땅, 생나무, 생억지, 생트집, 생떼
참— 참매, 참나무, 참깨, 참대, 참새, 참외
풋— 풋고추, 풋김치, 풋나물, 풋낮, 풋솜씨
한— 한여름, 한복판, 한밤중
홀— 홀바지, 홀저고리, 홀이불
햇— 햇곡식, 햇솜, 햇병아리
헛— 헛손질, 헛소문, 헛걸음, 헛기침
알— 알몸, 알건달
올— 올벼, 올사과, 올밤, 올콩

○ 뒤붙이

개— 지우개, 날개, 디디개, 덮개, 베개
매— 눈매, 몸매
뱅이— 앉은뱅이, 게으름뱅이
쟁이— 겁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꾸러기— 장난꾸러기, 잠꾸러기, 욕심꾸러기

련습

1. 앞붙이가 붙은 단어를 3개 찾고 어떤 뜻이 더해졌는가를 설명하시오.
2. 뒤붙이가 붙은 단어를 3개 찾고 어떤 뜻이 더해졌는가를 설명하시오.
3. 앞붙이가 붙은 단어와 뒤붙이가 붙은 단어를 10개씩 찾으시오.
4. 앞붙이와 뒤붙이가 붙은 단어를 5개 찾으시오.

복 습

1. 다음단어들에서 말뿌리를 밝히시오.
   너털웃음, 디디개, 길다랗다, 되풀이, 되새김, 젖떼기, 바람막이숲, 갈림길, 해돋이
2. 다음단어들이 두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합친말로 되는 까닭을 괄호안의 말마디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잔돈（잔 물고기）, 된장（된 기름）, 길짐승（기는 짐승）
3. 다음단어들에서 앞붙이와 뒤붙이를 밝히시오.
   얄밉다, 드세다, 달리기, 시누렇다, 맞불질, 몸매, 올콩, 들부시다
4. 같은 말뿌리가 두번 겹쳐 이루어진 합친말을 5개이상 찾으시오.
5. 뜻이 반대되는 말뿌리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친말을 5개이상 찾으시오.
6. 뜻이 비슷한 말뿌리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친말을 5개이상 찾으시오.
7. 앞붙이《들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동사를 10개이상 찾으시오.
8. 뒤붙이 《성》이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를 10개이상 찾으시오.

4.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 이어내기

우리는 단어를 발음할 때 받침뒤에 모음이 오면 그 받침을 그대로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다음문장에서 그렇게 발음되는 단어를 찾고 그것들이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알아보자.

◯ 혁이는 아침에 산으로 올라갔다.

우의 문장에서 앞의 받침을 뒤의 모음에 이어서 발음하는 단어는 《혁이는》, 《아침에》, 《산으로》이며 이것들은 각각 〔혀기는〕, 〔아치메〕, 〔사느로〕로 발음된다.

그것은 우리 말에서 앞에 있는 받침은 언제나 그뒤에 오는 모

음에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져 발음되는것을 이어내기라고 한다.

우리 말 단어들의 발음에는 이어내기가 아주 많다.

○ 밀영〔미령〕, 숙영지〔수경지〕, 발음〔바름〕, 조선의 노래〔조서늬 노래〕, 봄이〔보미〕

이어내기에는 자음《ㅎ》가 약해지면서 울림소리로 된 받침들이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져 발음되는것도 있다.

○ 나란히〔나라니〕, 용감하게〔용가마게〕, 열렬한〔열려란〕, 촘촘히〔촘초미〕

△ 끊어내기

다음단어들을 읽어보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며 이어내기와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보자.

○ 옷안, 해빛아래

우의 단어들을 발음하여보면 《옷안》은 〔옫안－오단〕으로 발음되고 《해빛아래》는 〔핻삗아래－핻삐다래〕로 발음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옷안》에서《ㅅ》받침이《ㄷ》받침소리로 달라져〔옫안〕으로 되였다가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져 〔오단〕으로 발음되기때문이다.

그리고 《해빛아래》에서도 역시 《ㅊ》받침이 《ㄷ》받침소리로 달라져 〔핻삗아래〕로 되였다가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져 〔핻삐다래〕로 발음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받침소리가 달라졌다가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져 발음되는것을 끊어내기라고 한다.

이런 소리는 언제나 받침소리가 달라졌다가 이어지는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 팔알〔팓알－파달〕, 무릎우에〔무릅우에－무르부에〕, 부엌안〔부억안－부어간〕

그러면 끊어내기는 이어내기와 어떻게 다른가.

다음의 두개 단어를 발음하여보고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

○ 일요일, 해빛아래

우의 단어들을 발음하여보면 《일요일》은 〔이료일〕로 발음되고 《해빛아래》는〔핻빋아래—해삐다래〕로 발음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두 단어에서 다같이 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져 발음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일요일》에서는 〔이료일〕과 같이 받침이 그대로 이어져 발음되고 《해빛아래》에서는〔핻빋아래—핻삐다래〕와 같이 받침소리가 달라졌다가 이어져 발음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다.

련습

1. 이어내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5개이상 찾고 왜 그렇게 발음되는가를 말하시오.
2. 끊어내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3개이상 찾고 왜 그렇게 발음되는가를 말하시오.
3. 다음단어들의 발음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보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시오.

꽃을, 찬찬히, 끝없이

5. 소리닮기와 《지, 치》로 되기

△ 소리닮기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보자.

○ 달나라, 밭머리

이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면 《달나라》는 〔달라라〕, 《밭머리》는 〔반머리〕로 발음된다.

그러면 우의 단어들이 왜 이렇게 발음되는가.

《달나라》가 〔달라라〕로 발음되는것은 《나》의 《ㄴ》이 앞의 받침 《ㄹ》을 닮아 그것과 같은 소리로 되기때문이며 《밭머리》가 〔반머리〕로 발음되는것은 《밭》의 받침 《ㅌ》이 뒤의 《ㅁ》

을 닮아 같은 울림소리인 《ㄴ》으로 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어안에서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닮아 그것과 같아지거나 비슷한 소리로 되는것을 소리닮기라고 한다.

소리닮기단어들은 언제나 닮아지는 소리대로 발음한다.

○ 앞마을〔암마을〕, 꽃눈〔꼰눈〕, 웃는다〔운는다〕, 들놀이〔들로리〕, 격멸〔경멸〕, 익는다〔잉는다〕

소리닮기단어를 발음하는데서 소리닮기가 아닌것을 소리닮기로 발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례를 들어 《밭관개》나 《돋보기》와 같은 단어들은 소리닮기단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박꽝개〕, 〔돕뽀기〕가 아니라 〔받꽌개〕, 〔돋뽀기〕로 정확히 발음하여야 한다.

○ 인민〔인민〕〔×임민〕

○ 온갖〔온갇〕〔×옹갇〕

○ 안기다〔안기다〕〔×앙기다〕

○ 안녕〔안녕〕〔×알령〕

○ 천년〔천년〕〔×철련〕

다만 《곤난》, 《한나산》은 발음이 굳어진대로 〔골란〕, 〔할라산〕으로 발음한다.

△ 《지, 치》로 되기

다음의 단어들이 모두 이어내기로 발음되는 단어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단어도 있는가를 가려보자.

○ 분이, 해돋이, 길이, 한결같이

우의 단어들은 얼핏 보면 모두 이어내기로 발음되는 단어같지만《분이》, 《길이》만이 이어내기로 발음되는 단어이고《해돋이》, 《한결같이》는 다르게 발음되는 단어이다.

단어 《해돋이》와《한결같이》는 단어 《분이》, 《길이》와 같이 받침뒤에 모음이 오지만 이어내기에서처럼 받침이 모음에 그대로 이어져 〔해도디〕, 〔한결가티〕로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ㄷ》받침은 《ㅈ》으로, 《ㅌ》받침은 《ㅊ》으로 소리를 바꾸어 〔해도지〕, 〔한결가치〕로 발음한다.

그것은 《ㄷ, ㅌ》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 《ㅣ》와 어울려 《지, 치》로 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음 《ㄷ, ㅌ》이 모음 《ㅣ》와 어울려 《ㅈ, ㅊ》으로 되는것을 《지, 치》로 되기라고 한다.

《지, 치》로 되기 단어들은 언제나 《지, 치》로 발음하여야 한다.

○ 미닫이〔미다지〕, 가을걷이〔가을거지〕, 굳이〔구지〕, 붙임표〔부침표〕, 붙이다〔부치다〕, 같이〔가치〕

련습

1. 다음단어들을 소리닮기와 《지, 치》로 되기에 맞게 정확히 발음하고 왜 그렇게 발음하는가를 말하시오.

권리, 낟낟이

2. 다음문장들에서 소리닮기와 《지, 치》로 되기 단어를 찾고 정확히 발음하시오.

○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조선로동당!

○ 겸손한 곰은 자기에게도 다른 짐승들과 꼭같이 상을 주는것을 굳이 사양하였다.

3. 다음단어들에서 소리닮기단어를 찾으시오.

설날, 멀리, 만리경, 봇나무, 강물, 천리마, 성냥, 근로자, 입는다, 인민

6. 소리끼우기와 소리빠지기

△ 소리끼우기

우리 말 발음에는 받침이 뒤의 모음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발음되는 이어내기도 있고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발음되는 소리닮기도 있는가 하면 단어안에 없던 소리가 끼워들어가 발음되는것도 있다.

그와 같은 실례로 《기발》, 《옛일》과 같은 단어들을 들수 있다.

이 단어들은 씌여진대로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기발》은 〔긷발－긷빨〕로, 《옛일》은 〔옏일－옌닐〕로 발음한다.

그것은 이런 단어들의 사이에 다른 소리가 끼워들어가 《기발》

은 〔긷발—긷빨〕로 발음되고 《옛일》은〔옏일—옌닐〕로 발음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어안에 없던 말소리가 끼워들어가 발음되는것을 소리끼우기라고 한다.

소리끼우기에는 《ㄴ》소리가 끼우는것과 《ㄷ》소리가 끼우는것이 있다.

① 《ㄴ》소리가 끼우는것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 밭일〔받일—반닐〕, 꽃잎〔꼳입—꼰닙〕, 어금이〔어금니〕, 짓이기다〔짇이기다—진니기다〕

② 《ㄷ》소리가 끼우는것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 해살〔핻살—핻쌀〕, 내과〔낻과—낻꽈〕, 쇠돌〔쇧돌—쇧똘〕, 배사공〔밷사공—밷싸공〕

소리끼우기로 된 단어들은 언제나 소리가 끼우는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ㄴ》소리가 끼운것은 《ㄴ》소리가 끼운대로 발음하여야 하며 《ㄷ》소리가 끼운것은 또한 《ㄷ》소리가 끼운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 소리빠지기

다음문장을 읽어보면 어느 한 소리가 빠지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 할아버지는 흙 한줌을 손에 쥐고 이 좋은 땅을 더 잘 걸구자고 말씀하셨다.

우의 문장에서 어느 한 소리가 빠지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들은 《흙》과 《좋은》이다.

《흙》에서는 둘받침가운데서《ㄹ》소리가 빠지면서《흙》이〔흑〕으로 발음되고《좋은》에서는《ㅎ》소리가 빠지면서《좋은》이 〔조은〕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단어를 발음할 때 어느 한 소리가 빠지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것을 소리빠지기라고 한다.

소리빠지기에는 《ㅎ》이 빠지는 경우와 둘받침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① 《ㅎ》이 빠지는 경우

○ 넣어〔너어〕, 넣으니〔너으니〕, 넣어서〔너어서〕, 닿아〔다

아〕, 닿으니〔다으니〕, 닿아서〔다아서〕,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 좋아서〔조아서〕

② 둘받침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경우

○ 닭〔닥〕, 읊다〔읍따〕, 삶다〔삼따〕, 돐〔돌〕, 넋〔넉〕

소리빠지기단어들은 소리가 빠지는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둘받침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빠지는 단어들을 발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로, 《닭》과 같이 혼자 쓰이거나 《읊다》와 같이 둘받침뒤에 자음이 오는 때에는 어느 한 소리가 빠지지만 둘받침뒤에 모음이 올 때에는 오른 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져 발음되면서 둘 다 발음된다.

○ 닭〔닥〕

닭이〔달기〕, 닭은〔달근〕, 닭에〔달게〕, 닭으로〔달그로〕, 닭이다〔달기다〕

○ 읊다〔읍따〕

읊으니〔을프니〕, 읊어서〔을퍼서〕

둘째로, 《ㄺ》, 《ㄼ》받침은 토《고, 기, 게》앞에서는《ㄹ》이 발음되고《ㄱ》, 《ㅂ》이 빠지며 그밖의 토앞에서는《ㄹ》이 빠지고 《ㄱ》, 《ㅂ》이 발음된다.

○ 붉고〔불꼬〕, 붉기〔불끼〕, 붉게〔불께〕, 붉다〔북따〕, 붉지〔북찌〕, 넓고〔널고〕, 넓기〔널끼〕, 넓게〔널께〕, 넓다〔넙따〕, 넓지〔넙찌〕

셋째로, 《여덟》은 언제나 〔여덜〕로 발음된다.

련습

1. 다음단어들에서 《ㄴ》소리끼우기와 《ㄷ》소리끼우기를 가르고 정확히 발음하시오.

논일, 배길, 덧이, 서리발, 나무단, 부억일

2. 다음단어들을 정확히 소리내여 발음하여보고 소리빠지기단어들을 찾으시오.

맑다, 맑고, 맑으니, 뽛다, 뽛으니, 없다, 없으니, 많으니, 많아서, 많고, 많지, 많다, 넋, 넋이, 기슭, 기슭이, 기슭과

7. 된소리되기와 거센소리되기

△ 된소리되기

우리 말 단어에는 글로 적을 때에는 순한소리로 적지만 그것을 발음할 때에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단어들이 적지 않다.

다음문장을 읽어보고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을 찾아보자.

○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 속도전의 불바람 세차게 일었다.

우의 문장을 읽어보면 《북소리》〔북쏘리〕와 《속도전》〔속또전〕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뒤에 있는 순한소리《ㅅ》과《ㄷ》이 각각 앞에 있는 자음 《ㄱ》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로 발음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뒤에 있는 순한소리가 앞에 있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되는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 집단〔집딴〕, 봄비〔봄삐〕, 늦가을〔는까을〕, 빛갈〔빋깔〕,
걷다〔걷따〕, 핵심〔핵씸〕, 당성〔당썽〕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것이 있다.

○ 충성〔충성〕, 달구경〔달구경〕, 봄갈이〔봄가리〕, 손발〔손발〕

그러므로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 거센소리되기

우리 말 단어에는 또한 순한소리로 적힌것이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도 적지 않다.

다음문장들에서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을 찾아보자.

○ 어제 학교에서는 최우등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다.

○ 속담에 급히 먹는 밥 목이 멘다고 하였다.

우의 문장들에서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은《축하》〔추카〕와 《급히》〔그피〕이다.

그것은 두 단어에서 다같이 자음《ㅎ》이 다른 자음《ㄱ》,《ㅂ》과 어울려 각각 거센소리 《ㅋ》과 《ㅍ》으로 발음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음《ㅎ》이 순한소리《ㄱ, ㄷ, ㅂ, ㅅ, ㅈ》과 어울려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것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 막히다〔마키다〕, 맏형〔마텽〕, 넓히다〔널피다〕, 오붓하다〔오부타다〕, 젖히다〔저치다〕

련습

1. 다음단어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들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들을 찾고 정확히 발음하시오.
   인민성, 불구름, 열개, 먼바다, 줄당콩, 산새, 안기다, 강가, 그믐달, 가을걷이, 늦벌레, 소쩍새
2. 다음단어들에서 거센소리되기와《지, 치》로 되기, 이어내기가 일어나는 단어를 각각 찾으시오.
   이렇듯, 그렇지, 닻이, 샅샅이, 좋지, 쇠붙이, 앉히다, 붙이다, 맞히다, 돛이, 맏이, 부엌에, 뭍에, 똑똑하다

8. 문장을 발음할 때 어떤 점을 잘 지켜야 하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말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류창하고 매우 아름답다.》

류창하고 아름다운 우리 말의 우수성을 살려 글도 잘 읽고 말도 잘하자면 단어의 발음법과 함께 문장을 발음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 문장을 발음할 때 어떤 점을 잘 지켜야 하는가.

문장을 발음할 때에는 억양을 잘 살려야 한다.

그러면 억양이란 무엇인가.

다음의 례문을 읽어보자.

○ 4월의∨ 명절∨ 밤은∨ 깊어도→ //

↘
행복의∨ 노래 / 그치지∨ 않네///

(///, //, /, ∨ —끊기부호, → ↘ — 높낮이부호,

…… — 소리마루부호)

우의 례문에서 보는것처럼 우리가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에는 문장을 이루고있는 모든 부분을 한본새로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대목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또 어떤 대목에 가서는 끊고 쉬고 넘어가기도 하며 속도를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대목은 다른 부분보다 두드러지게 발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장을 발음할 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세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며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는 말소리의 흐름을 억양이라고 한다.

○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억양은 문장의 사상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잘 전달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에는 억양을 잘 살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러면 억양은 어떤것들로 이루어지는가.

① 높낮이선

높낮이선은 문장을 발음할 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말소리의 기본흐름선이다.

↘ ↘
○ 문뜩 천막안에서 중대장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 ↗ →
《어디 좀 돌아가는 길이라도 없을가?… 달구지길이라도…》

↗
《돌아가는 길?》

↘
용수의 머리에는 피뜩 버들골로 가는 골짝길이 떠올랐다.

② 끊기

끊기는 문장을 발음할 때 끊거나 쉬고 넘어가는것을 말한다.

○ 그제야 너구리는/ 후회를 했습니다.///

(제 살림은/ 제가∨ 꾸려야지/ 남만 믿다가는∨ 안되겠군.…) ///

그러나∨ 때는 늦어/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원두막의 이영을 벗겨가고// 앙상하게 남은/ 기둥마저 넘어뜨릴듯/ 계속∨ 세차게 불었습니다.///

③ 속도

속도는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하는가 하는것이다.

○ 아저씨가 서너발자국앞에 다달았을 때 영철이는 소리쳤다.

《못 갑니다!》

《뭐?… 못 간다구?… 난 그저 예까지 왔다. 그런데 넌 웬 애냐?》

《전 보초병입니다.》

《뭐? 보초병?》

《예, 전 인민군대보초병입니다.》

(______ 빠르게, ______ 느리게)

④ 문장의 소리마루

문장의 소리마루는 문장을 발음할 때 어느 한 부분을 특별히 두드리지게 발음하는것이다.

○ 김광철영웅의 한생은 짧았지만 그것은 별처럼 빛나는 한생이였다.

⑤ 소리빛갈

소리빛갈은 사람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목소리를 달리 하는것이다.

○ 할머니는 지나가는 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 평양산원이 어디냐?》

《할머니, 저기 어서 오라고 두팔 벌리고 서있는것 같은 큰 집이 평양산원이예요.》

《그래, 고맙다.》

이 례문을 읽을 때에는 할머니의 말과 소녀의 말을 서로 다른 목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할머니의 말을 깊고 굵은 소리로 발음하여야 하며 소녀의 말은 얕고 가는 소리로 귀엽게 발음하여야 한다.

련습

1. 다음글을 어떤 억양으로 읽겠는가를 표시하고 그에 맞게 읽으시오.
   ○ 높이높이 날아라
   사랑의 그네야
   흰구름도 휘－휘－
   발아래 흘러가고
   둥근달도 둥－둥－
   그네따라 함께 나네
   ○ 그 애들의 까만 눈이 쏠린 곳은 개미굴이였다.
   《이사가는게 틀림없지？ 새하얀 이사짐을 입에 물구…》
   《응，치마입은 왕개미가 마감에 나왔어.》
   그 애들이 소곤소곤 주고받는 말이였다.
2. 다음글에서 짐승들의 말을 소리빛갈에 맞게 읽으시오.
   ○ 야웅이가 듣다못해 깨우쳐주었습니다.
   《꿀꿀아！ 내 말 좀 들어. 주인이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골라서 잔치상에 반찬감으로 올리겠다는거야！》
   《뭐？ 바 반찬감으로？…》
   꿀꿀이는 야웅이의 말을 듣고서야 말을 더듬으며 뒤걸음치다가 제 구유에 걸채여 펄석 주저앉고말았습니다.

복　습

1. 이어내기와 끊어내기에 대하여 다음단어들로 례를 들면서 말하시오.
   밝은，부지런히，해빛아래
2. 다음시련에 어떤 소리되기의 단어들이 있는가를 찾고 갈래별로 묶으시오.

   아，어머님의 뜨거운 손길에 받들려
   조국의 밤하늘에 훨훨 나는 아이들
   백두산 장수별이 반겨맞았네
   사랑어린 빛발을 뿌려주었네

3. 다음단어들에서 소리끼우기와 소리빠지기단어들을 찾아 정확히 발음하시오.

시읊기, 시내가에, 붉다, 여덟, 천천히, 저가락, 쇠돌, 많이, 흙깔이

4. 다음단어들에서 소리닮기와 《지, 치》로 되기, 거센소리되기단어들을 찾고 그것이 왜 그런 소리로 되는가를 말하시오.

꽃망울, 매일같이, 입히다, 진료소, 맏형, 앞마을, 꽃향기

5. 다음글을 어떤 억양으로 읽겠는가를 말하고 그에 맞게 읽으시오.

○ 어서 가자 어머님 마중가자
철이야, 옥이야, 조국의 미래들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사상 품고오시는
어머님 마중가자
어서빨리 조국의 새날을 맞으러 가자!

○ 《해병들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잊지 말라.
미제침략자들을 끝까지 쳐없애자!》
정대장아저씨가 힘있게 웨쳤다.

9.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

명사란 사람이나 동식물, 물건 등을 이름지어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명사들가운데에는 《로동자》, 《지식》과 같이 《누구》, 《무엇》이라고 명백하게 이름찍어 나타내는 단어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명사들가운데에는 《일하는분》의 《분》, 《아는것》의 《것》과 같이 그것 혼자서는 《누구》, 《무엇》이라는 명백한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앞에 오는 《일하는》, 《아는》과 같은 규정해주는 단어와 합해져야만 명백한 뜻을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다.

이러한 단어들도 역시 명사에 속한다. 왜냐하면《분》이나 《것》과 같은것들도《일하는분이》,《일하는분을》,《일하는분의》,《아는것이》,《아는것을》,《아는것의》와 같이 토가 붙을수 있으며《일하는분》,《아는것》과 같이 토를 떼버리고도 쓰일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로동자》,《지식》 등과 같기때문이다.

명사들가운데서《로동자》,《지식》과 같이 자기 혼자서도《누구》,《무엇》이라고 그 뜻을 명백하게 이름찍어 나타내는 단어들을 완전명사라고 부르며《분》,《것》과 같이 자기 혼자서는 그 뜻을 명백하게 이름찍어 나타내지 못하고 반드시 그앞에 《일하는》,《아는》과 같이 자기를 규정해주는 단어가 와야만 쓰일수 있고 뜻도 명백해지는 그러한 명사들을 불완전명사라고 부른다.

불완전명사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을 더 들수 있다.

○ (못된)짓, (간첩)노릇, (쓸)만큼, (훌륭한)이, (비겁한)자, (태여날)적, (동틀)무렵, (해질)녘, (날 밝을)즈음, (저)쪽, (가는)데, (시작한)김, (더할)나위, (모를)리, (죽을)번, (알)수, (아는)체, (자는)척, (도착한)바, (그)따위

불완전명사가운데서 《학생 열명》의 《명》,《연필 세자루》의 《자루》,《두부 한모》의 《모》,《여덟시》의 《시》와 같이 수사의 뒤에 놓이면서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따로 단위명사라고 부른다.

불완전명사는 글로 적을 때에 언제나 그앞에 오는 자기를 규정해주는 말에 붙여서 쓴다.

련습

1.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문장에서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를 찾아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나는 문득 동무들이 부탁한 책을 더 많이 구할수는 없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3. 다음불완전명사를 넣어 짧은글을 지으시오.

   나위, 상, 뿐, 나름

10. 수량수사와 순서수사

수사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 첫째 우리 재빛토끼는 첫배에 열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셋째 우리 깜장토끼는 두배에 걸쳐 예닐곱마리의 새끼밖에 낳지 못했다.

우의 문장에서 《첫째, 열, 셋째, 예닐곱》 등이 수사이다.

이 수사들가운데서 《열, 예닐곱》은 새끼토끼가 몇마리인가 하는 수량을 나타내고있다.

이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수량수사라고 한다.

그러나 수사《첫째, 셋째》는 몇째 우리인가 하는 차례를 나타내고있다.

이처럼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를 순서수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수사에는 수량수사와 순서수사가 있다.

그런데 수량수사《열》, 순서수사《첫째, 셋째》는 정확한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고있지만 수량수사《예닐곱》은《여섯》이 아니면《일곱》이라는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고있다.

이처럼 수량수사나 순서수사에는 정확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것도 있고 대략적인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것도 있다.

그 실례들을 들어보자.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수사

○ 하나, 둘, 셋, 열, 스물, 쉰…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수사

○ 한둘, 서넛, 여라문, 스무나문…

정확한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수사

○ 첫째, 둘째, 셋째, 열째, 마흔째, 예순다섯째, 아흔아홉째…

대략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수사

○ 한두째, 두셋째, 네댓째, 여라문째, 스무나문째, 여든댓째…

수사는 주로 수자로 쓴다. 그러나 수자로 써놓았다고 하여 그것이 다 수사로 되는것은 아니다.

다음실례들을 대비하여 따져보자.

○ 6.6절:66

4.25체육단:425

우의 례문에서 《6.6절》과 《4.25체육단》은 그 어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6.6절》은 조선소년단이 창립된 날자를 이름지어 나타낸 단어이며 《4.25체육단》은 조선인민군체육단의 이름을 지어 나타낸 말이다.

그러므로 《6.6절》과 《4.25체육단》은 수사가 아니라 명사이다.

그러나 《66》과 《425》는 그 무엇을 이름지어 나타낸것이 아니라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고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수사이다.

수자로 써놓은 수사를 읽을 때에는 될수록 우리 말로 읽어야 한다.

○ 19살—열아홉살（×십구살）
20척—스무척（×이십척）
12단—열두단（×십이단）
36그루—서른여섯그루（×삼십륙그루）
3문—세문（×삼문）

그러나 날자를 나타내는 《년, 월, 일》과 돈을 셀 때 쓰는 《원, 전》 등의 단위명사가 올 때에는 한자말수사로 읽는다.

○ 주체83（1994）년 6월 6일〔주체팔십삼(천구백구십사）년 류월 륙일〕

○ 276원 84전（이백칠십륙원 팔십사전）

일부 수사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발음한다.

다음의 수사들에 알맞는 단위명사들을 붙여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개, 달, 마리, 되, 말（쌀 한말）, 돐》

○ 한개, 한달, 한마리 (《하나》→《한》으로）

○ 두개, 두달, 두마리 (《둘》→《두》로）

○ 세개, 석달, 서말 (《셋》→《세, 석, 서》로）

○ 네개, 넉달, 너말 (《넷》→《네, 넉, 너》로）

○ 닷되, 닷말 (《다섯》→《닷》으로）

○ 엿되, 엿말 (《여섯》→《엿》으로）

○ 스무개, 스무돐 (《스물》→《스무》로）

뿐만아니라 《월, 리》 등의 단위명사가 일부 수사들과 어울릴 때에도 발음이 달라진다.

◯ 《6 월》은 《류월》로, 《10 월》은 《시월》로 된다.

그러므로 수사를 읽을 때 이처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를 잘 알고 써놓은대로 읽느라고 《10 월》을 〔십월〕이라고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련습

1. 수량수사와 순서수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첫째, 셋째》는 수사인데 《처음, 마지막》은 왜 수사가 아닌가를 설명하시오.
3. 다음수사들을 똑바로 읽어보시오.
   종이 4장, 연필 3자루, 쌀 5말, 학습장 14권, 12살, 10월 10일, 사과 2알

11. 사람대명사,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

대명사란 사람이나 동식물, 물건들을 가리키기만 하는 단어들을 말한다.

◯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가서 네 책을 찾아가라.

우의 문장에서 《우리, 나, 네》는 대명사이다.

《우리,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자신을 가리키며 《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가리키고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람대명사라고 한다.

사람대명사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 나, 너, 너희, 저, 저희, 우리

사람대명사 《나, 너, 저》는 토《의》와 어울릴 때 《내, 네, 제》로 줄어들며 토 《가》와 어울릴 때도 《내, 네, 제》로 줄어든다.

그러므로《내가》를《나가》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대명사를 쓸 때에는 말차림을 똑바로 갖추어야 한다.

웃사람앞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에는《나》나《우리》를 쓰지 말

고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저(제), 저희》를 써서 례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

○ 선생님, 이 일을 제가(저희들이) 맡아하겠습니다.(×내가, 우리가)

○ 이것이 다 제(저의) 잘못입니다.(×내)

다음의 례문에서 대명사를 찾아보자.

○ 이 책과 그 동화집은 가져가고 저 잡지는 좀 둬두고 가라.

이 문장에서 대명사는 《이, 그, 저》이다.

대명사 《이》는 책을, 《그》는 동화집을, 《저》는 잡지를 각각 가리키고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 그밖의것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가리킴대명사라고 한다.

가리킴대명사에는 《이, 그, 저, 여기, 거기, 저기》가 있다.

이 가리킴대명사들은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듣는 사람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갈라쓴다.

《이(요)》와 《여기(요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가까이에 있을 때 쓰며 《그(고)》와 《거기(고기)》는 이야기듣는 사람의 가까이에 있을 때 쓴다. 《저(조)》와 《저기(조기)》는 두 사람에게 다 멀리에 있을 때 쓴다.

다음의 례문에서 좀 다른 뜻으로 쓰인 대명사를 찾아보자.

○ 책이 모두 몇권이냐? 잡지는 누구의것이냐? 언제 또 가지러 오겠니?

이 문장에서 《몇, 누가, 언제》는 대명사이다.

이 대명사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있는가를 보자.

대명사《몇》은 책권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물음의 뜻을 가지고 책을 가리키고있으며《누구》는 잡지의 임자에 대한 물음의 뜻을 가지고 잡지의 임자를 가리키고있다. 대명사 《언제》는 날자에 대한 물음의 뜻을 가지고 때를 가리키고있다.

이처럼 물음의 뜻을 가지고 가리키는 대명사들을 물음대명사라고 한다.

물음대명사에는 《누구, 아무, 무엇, 얼마, 몇, 어디, 언제》 등이 있다.

물음대명사 《누구》는 토 《가》우에서 《누가》로 될수 있으

며 토 《의》우에서는 《뉘》로도 될수 있다.

○ 누가 책을 읽습니까?(누구가)

○ 이게 뉘 책인가요?(누구의)

물음대명사《무엇》은 보통 이야기할 때 말소리가 바뀌여《뭣, 무어》로 된다.

련습

1. 다음단어들에서 사람대명사,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를 가르시오.

   누구, 이, 여기, 나, 얼마, 너, 그, 아무, 저희, 어디, 저, 몇, 언제, 저기, 너희, 거기, 무엇, 우리

2. 다음문장에서 잘못 쓰인 대명사를 바로잡으시오.

   ○ 선생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 이 일은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복　습

1. 다음불완전명사앞에 알맞는 단어를 얹혀주면서 짧은글을 지으시오.

   나위, 데, 적, 줄, 뿐

   례: 명수는 나무랄데 없는 최우등생이다.

2. 다음단어결합에 알맞는 단위명사들을 붙이시오.

   ○ 기름 열－　　벼 열다섯－

   두부 세－　　배 여섯－

   고려약 스무－　　포 다섯－

   성냥 네－　　이불 네－

   나무 열－　　연필 열두－

3. 아래의 말들에서 명사와 수사를 가려내고 그렇게 되는 까닭을 말하시오.

   ○ 9.9절, 넷, 둘, 사흘, 나흘, 다섯째, 6.1절, 스무나무, 셋, 한두째, 이틀, 하나, 0, $\frac{1}{2}$, 하루, 5, 예닐곱째

4. 다음문장에서 대명사들을 찾고 무슨 대명사인가를 말하시오.
신문기자가 기차에서 내렸다.
때마침 어떤 소년이 다가왔다. 그 소년은 인사를 깍듯이 하였다.
《손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응, 난 평양에서 온단다. 그런데 넌 누구냐?》
《전 영웅홍원중학교 학생 김철호입니다. 기자선생님 마중을 나왔습니다.》
《응 그래, 내가 너희 학교를 찾아가는 기자란다. 학교가 여기서 머냐?》
《아니요, 가깝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5. 다음문장에서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 수량수사와 순서수사, 사람대명사와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를 찾으시오.

○ 주체36(1947)년 8월 어느날이였다.
중앙민청에서 학생소년사업을 맡아보던 나는 그날 온 나라의 여러곳에서 뽑혀온 100여명의 모범소년단원들을 데리고 금강산에 갔다가 야영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 선생님은 첫줄에 앉은 학생부터 차례로 어데서 왔으며 이름은 무엇인가, 아버지는 뭘하시는가, 식구는 몇명인가 등 그들의 집안형편을 하나하나 물었다.

12. 자립동사와 보조동사

동사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동사들가운데는 《용해공이 되겠다.》의 《되다》, 《기차는 이미 떠났다.》의 《떠났다》와 같이 다른 동사와 합치지 않고 자기 혼자서도 쓰일수 있는것과 《용해공이 되고싶다.》의 《싶다》, 《기차는 이미 떠나고말았다.》의 《말다》와 같이 다른 동사와 합쳐서라야만 쓰이고 자기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는것이 있다.

동사들가운데서 《되다》, 《떠나다》와 같이 다른 단어와 합치지 않고 자기 혼자서도 쓰일수 있는 동사를 자립동사라고 부르고 《싶다》, 《말다》와 같이 자기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

른 단어와 합쳐서라야만 쓰이는 동사를 보조동사라고 부른다. 동사들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것은 자립동사이며 보조동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동사들가운데는 어떤 때에는 자립동사적으로 쓰이다가 어떤 때에는 보조동사적으로 쓰이는것이 있다.

례를 들면 《쓰레기를 오물통에 버린다.》고 할 때에는 《버리다》가 자립동사적으로 쓰이였지만 《하루밤사이에 다 읽어버린다.》고 할 때에는 《버리다》가 보조동사적으로 쓰인것이다. 이렇게 자립동사적으로 쓰이던것이 보조동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그 뜻도 달라진다. 《버리다》가 자립동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쓸모없기때문에 내던지다》의 뜻을 나타내지만 보조동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다.》의 뜻을 나타낸다.

자립동사적으로도 쓰이고 보조동사적으로도 쓰이는 동사의 례를 몇개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다

학교로 간다.(자립동사적으로 쓰임)

날이 저물어간다.(보조동사적으로 쓰임)

○ 두다

책상우에 두었다.(자립동사적으로 쓰임)

삼촌에게 부탁해두었다.(보조동사적으로 쓰임)

○ 놓다

연필을 놓았다.(자립동사적으로 쓰임)

잘 만들어놓았다.(보조동사적으로 쓰임)

○ 내다

시험답안을 낸다.(자립동사적으로 쓰임)

곤난을 이겨낸다.(보조동사적으로 쓰임)

○ 주다

영수에게 책을 주었다.(자립동사적으로 쓰임)

영수에게 말하여주었다.(보조동사적으로 쓰임)

련습

1. 자립동사와 보조동사의 다른 점을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문장에서 자립동사와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를 찾고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들의 본뜻을 말하시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평양의 맛좋은 국수며 대동강의 숭어, 만경대의 화창한 봄에 대하여 깊은 감회에 잠겨 말씀하군 하시였다.
   ○ 혁명가들은 온갖 낡은것들을 쓸어버리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여나가는 투사들이다.

13.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다른가

동사와 형용사는 다같이 용언에 속하는 품사들로서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더 많다. 이 두 품사는 다같이 토가 붙을수 있을뿐아니라 토를 떼버리고 혼자서 쓰일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토가 붙는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하여 이 두 품사를 하나로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것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부분적으로 차이점도 있다.

첫째로, 동사와 형용사는 뜻에서 차이점이 있다.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형용사는 움직임의 뜻이 전혀 없는 순수한 모양,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기때문에 동사는《어찌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지만 형용사는《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대답한다.

○ 국방력을 강화한다. (동사)
  국방력이 강하다. (형용사)
○ 얼굴이 고와진다. (동사)
  얼굴이 곱다. (형용사)

둘째로, 동사와 형용사는 토가 붙는데서 일부 차이점이 있다.

동사는 맺음토 《ㄴ다, 는다》가 붙어서 현재의 뜻을 나타내지만 형용사는 《ㄴ다, 는다》가 붙지 못하고 그 대신 《다》가 붙어서 현재의 뜻을 나타낸다.

○ 공부한다 (동사)
용감하다 (형용사)
용감한다 (불가능)
○ 입는다 (동사)
곱다 (형용사)
곱는다 (불가능)

동사에는 규정토 《는》이 붙어서 현재의 뜻을 나타내지만 형용사에는 규정토 《는》이 붙지 못하고 그 대신 《ㄴ, 은》이 붙어서 현재의 뜻을 나타낸다.

○ 공부하는 학생 (동사)
용감한 학생 (형용사)
용감하는 학생 (불가능)
○ 입는 옷 (동사)
고운 옷 (형용사)
곱는 옷 (불가능)

셋째로, 동사와 형용사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데서 차이점이 있다.

동사는 《—고있다》와 결합하지만 형용사는 《—고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 강화하고있다○, 고와지고있다○, 공부하고있다○, 입고있다○ (동사)

○ 강하고있다×, 곱고있다×, 용감하고있다× (형용사)

동사는 《차차》, 《이미》, 《빨리》, 《잘》과 같은 부사들과 결합할수 있지만 형용사는 이런 부사들과 결합하지 않는다.

○ 차차 가겠다○, 이미 갔다○, 빨리 간다○ (동사)

○ 차차 곱겠다×, 이미 고왔다×, 빨리 곱다×, 잘 곱다× (형용사)

련습

1.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단어들가운데서 동사와 형용사를 가려내고 그것이 왜 동사이며 형용사인지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그립다, 그리다, 믿다, 미덥다, 근면하다, 근로하다, 빛나다, 찬란하다, 두렵다, 달리다, 위대하다, 존경하다

14. 관형사와 앞붙이는 어떻게 다른가

관형사는 다른것과 구별되는 점들을 찍어서 나타내는 품사이며 앞붙이는 말뿌리의 앞에 붙어서 새로운 뜻을 더하여주는 형태부이다.

관형사는 토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해주며 앞붙이도 토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말뿌리에 덧붙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관형사는 한개의 단어이며 앞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의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관형사와 앞붙이는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관형사와 그뒤에 오는 단어사이에는 발음할 때 짧은끊기를 둘수 있다. 그러나 앞붙이와 그뒤에 오는 말뿌리사이에는 끊기를 둘수 없다.

○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되고 모든 인민이 무장하였다. (《온》과 《나라》사이, 《모든》과 《인민》사이에는 끊기를 두고 발음할수 있다. 따라서 《온》과 《모든》은 관형사이다.)

○ 맏아들, 외딸 (《맏》과 《아들》사이, 《외》와 《딸》사이에는 끊기를 둘수 없다. 따라서 《맏》과 《외》는 앞붙이이다.)

둘째로, 관형사는 수많은 단어들과 자유롭게 결합할수 있으나 앞붙이는 제한된 몇개의 말뿌리와만 결합한다.

○ 온

온 나라, 온 인민, 온 학교, 온 도시, 온 동네, 온 집안, 온 방안(자유롭게 결합한다. 따라서 관형사이다.)

○ 새

새 책상, 새 옷, 새 신발, 새 선생, 새 학생, 새 책, 새 연필갑(자유롭게 결합한다. 따라서 관형사이다.)

○ 맏

맏아들, 맏딸, 맏형, 맏오빠, 맏언니, 맏손자, 맏며느리(결합한다.)

맏공장, 맏대학, 맏학교, 맏다리(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맏》은 앞붙이이다.)

○ 외

외아들, 외딸, 외기러기, 외눈(결합한다.)

외신, 외다리, 외양말(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외》는 앞붙이이다.)

셋째로, 관형사와 그뒤에 오는 명사사이에는 다른 단어가 끼여들어갈수 있지만 앞붙이와 그뒤에 오는 말뿌리사이에는 다른 단어가 끼여들어갈수 없다.

○ 온

온 마을—온 농장마을(가능하다. 따라서 관형사이다.)

○ 새

새 책상—새 사무용책상, 새 책—새 문법책(가능하다. 따라서 관형사이다.)

○ 맏

맏아들—맏 우리 아들, 맏며느리—맏 무던한 며느리(불가능하다. 따라서 앞붙이이다.)

○ 외

외아들—외 귀한 아들, 외딸—외 고운 딸(불가능하다. 따라서 앞붙이이다.)

관형사는 옹근 한개의 단어이기때문에 글로 적을 때에는 그뒤에 오는 명사와 띄여써야 하지만 앞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의 구성부분이기때문에 그뒤에 오는 말뿌리와 붙여써야 한다.

련습

1. 관형사와 앞붙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례에서 관형사와 앞붙이를 가려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군(~입질, ~소리, ~불, ~침, ~더더기)

여느(~ 사람, ~ 학교, ~ 동네, ~ 만년필)

덧(~거름, ~문, ~저고리, ~양말, ~국)

매(~ 가정, ~ 학생, ~ 책상, ~ 교실)

순(~거짓말, ~물, ~나무, ~돌멩이)

한(~여름, ~밤중, ~복판, ~숨, ~아름)

참(~배, ~깨, ~대, ~외, ~나무, ~기름)

각(~ 학교, ~ 학급, ~ 직장, ~ 당, ~ 파)

3. 다음례에서 띄여쓰기가 잘못된것을 찾고 바로잡으시오.

온갖꽃, 갖은만행, 옛이야기, 숫 눈길, 햇 곡식, 헛 소문, 왕모래, 단하루, 단 층, 여러세대, 찰 밥

15. 관형사와 부사는 어떻게 다른가

관형사란 토가 붙지 않으면서 체언과 결합하는 단어이며 부사란 토가 붙지 않으면서 용언과 결합하는 단어이다.

○ <u>온</u> 학교가 나무심기에 <u>다</u> 떨쳐나섰다.

여기에서는 《온》이 관형사이며 《다》가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다같이 토가 붙지 않으면서 뒤에 오는 다른 단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관형사와 부사는 몇가지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첫째로, 관형사는 체언과 결합하는데 부사는 용언과 결합한다는것이다.

관형사는 그뒤에 오는 체언과 결합하면서 그 체언을 규정해주지만 부사는 그뒤에 오는 용언과 결합하면서 그 용언을 꾸며준다.

앞에서 례든 문장에서 관형사 《온》은 뒤에 오는 명사 《학교》와 결합하면서 그에 대하여 《어떤？》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으며 부사 《다》는 뒤에 오는 동사 《떨쳐나섰다》와 결합하면서 그에 대하여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관형사는 체언과 결합하고 부사는 용언과 결합한다는 이 점은 관형사와 부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둘째로, 관형사에는 토가 절대로 붙지 않는데 부사에는 토가 기본적으로 붙지 않을뿐 때때로 한두개의 토가 붙는다는것이다.

관형사《온》에는 토가 절대로 붙지 않지만 부사《다》에는《다<u>들</u>(떨쳐나섰다)》, 《다<u>는</u>(모를것이다)》, 《(이것이) 다<u>가</u> (아니다)》와 같이 한두개의 토가 붙을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단어에 단 한개의 토라도 붙는 경우가 있다면 그 단어는 벌써 관형사

가 아니다. 그러나 부사에는 기본적으로 토가 붙지 않을뿐 특수하게는 한두개의 토가 붙을수 있기때문에 이런 사실을 보고 부사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된다.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셋째로, 관형사는 오직 체언과만 결합하는데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과 결합하고 때로는 용언이 아닌 다른 품사와도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는것이다.

관형사 《온》은 《온 학교》, 《온 도시》, 《온 마을》과 같이 오직 체언과만 결합하는데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과 결합하면서도 체언과 결합하는 때도 있고 부사와 결합하는 때도 있으며 관형사와 결합하는 때도 있고 문장전체와 관계하는 때도 있다. 《그 집 식구는 다 대학생이다.》에서는 부사 《다》가 명사 《대학생》과 결합하였고《매우 빨리 달린다.》에서는 부사《매우》가 부사《빨리》와 결합하였으며《거의 새 책상이나 다름없다.》에서는 부사《거의》가 관형사 《새》와 결합하였고 《승냥이는 결코 양으로 변할수 없다.》에서는 부사 《결코》가 문장전체와 관계하였다.

련습

1.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점을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아무》, 《무슨》, 《웬》이 각각 무슨 품사인가를 밝히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3. 다음단어들로 짧은글을 짓고 그것이 어떤 단어들과 결합하며 무슨 품사인가를 말하시오.
   갖은, 몹시, 과연, 어느, 더

복 습

1.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들가운데서 완전명사, 불완전명사, 수량수사, 순서수사, 사람대명사,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 자립동사, 보조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들을 찾으시오.

○ 집단을 사랑하고 혁명과업에 대하여 불같은 열정을 가질 때, 자기의 성과보다 동무들의 성과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 때 비로소 혁명가적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였다고 말할수 있는것입니다.

○ 나는 이제부터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광부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마음이 무엇이며 그와 같은 혁명적열정이 과연 어디서 샘솟고있는가 하는것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온갖 풍랑을 헤치며 반세기이상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

3. 자립동사로도 쓰이고 보조동사로도 쓰이는 단어의 례를 5개 들고 그것들이 자립동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어떤 뜻을 나타내고 보조동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하시오.

16. 도움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도움토는 단어의 역할과 뜻을 도와주는 토이다.

도움토는 격토와 마찬가지로 체언에 직접 붙는 체언토이다. 그러나 도움토는 격토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격토는 단어와 단어를 련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도움토는 사람이나 물건들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 올해에는 남새<u>가</u> 잘되였다.

○ 올해에는 남새<u>도</u> 잘되였다.

첫 문장에서는 주격토 《가》가 《남새》와 《잘되였다》를 련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도》가 남새와 그밖의 농작물들 즉 알곡이나 과일 등과의 관계에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 잘된데다가 남새까지 잘되였다고 하는《포함》의 뜻을 나타내고있다.

둘째로, 격토는 오직 체언에만 붙는다면 도움토는 기본적으로 체언에 붙으면서 그밖에 용언이나 부사에도 붙는다.

○ 가면서도, 가려고도, 가고도, 가려고만, 가고만, 빨리도, 빨리만

도움토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도》: 둘이상의 사람이나 물건, 그밖의것을 포함시키거나 무엇을 특별히 강조한다는것을 나타낸다.

○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도 건설하고 자위적인 방위체계도 갖추어놓았다.(포함)

○ 귀중한 물을 한방울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강조)

《마저》: 《심지어, 무엇까지도》의 뜻을 덧붙여주면서 포함시키는 뜻을 나타낸다.

○ 전쟁시기 미제의 폭격으로 조선에서는 참새마저 깃들일 곳을 잃었다.

《조차》: 《마저》와 비슷한 뜻을 나타낸다.

○ 뜯어먹을 풀조차 없었지만 누구 하나 유격근거지를 떠나려하지 않았다.

《만》: 《다른것은 아니고 오직 그것 하나》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토는 《도》와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토라고 말할수 있다.

○ 여기는 미국놈의 폭격에 재가루만 흩날리던 곳입니다.

《만》은 때로 순수 강조의 뜻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에게는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이 꿈만 같았다.

《부터, 까지》: 《부터》는 출발점을 나타내며 《까지》는《부터》와 짝을 이루어쓰이면서 그 끝점을 나타낸다.

○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반만년의 력사를 한겨레로 살아온 조선,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끝까지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조선이 미제에 의하여 두동강으로 갈라졌다.

《부터》는 혼자 쓰이면서 《무엇보다먼저》의 뜻으로도 쓰이며 《까지》는 《깡그리, 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시고 개선하신 뒤 조부모님께서 계시는 만경대고향집에 앞서 강선

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였다.

○ 우리는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바쳐 이 고지를 사수하겠습니다.

《는(은)》: 다른것보다 어느 한가지를 특별히 찍어서 더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 혁명하는 사람은 밥은 한두끼 건는다 하더라도 학습은 한시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야(이야)》: 《다른것과 달리 이것은》의 뜻을 가지고 무엇을 특별히 강조한다.

○ 우리 공화국이야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데니까 병이 나도 무상으로 치료해주지요.

《나마(이나마)》: 《별로 훌륭한것이 못되여도》의 뜻을 나타낸다.

○ 유격대동무들, 변변치 못한것이나마 근거지인민들의 성의이니 받아주시오.

《라도(이라도)》: 《나마》와 비슷한 뜻을 나타낸다.

○ 꽃분이는 꽃이라도 꺾어다 팔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다.

《커녕》: 대체로는 도움토《는(은)》의 뒤에 붙어서《…은 고사하고》의 뜻을 나타내면서 부정한다.

○ 일제시기 로동자들이 받는 로임으로는 밥은커녕 하루 죽물 세끼도 끓여먹기 어려웠다.

《마다》: 《하나하나가 다》의 뜻을 나타낸다.

○ 해빛밝은 아빠트의 창문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 흘러넘친다.

련습

1. 다음문장에서 도움토를 찾고 어떤 뜻으로 쓰이였는가를 설명하시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나무잎이 떨어지고 싸늘한 하늬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 사슴이네, 다람이네를 비롯한 이웃들이 누구도 얼씬하지 않았다.
2. 포함시키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를 2개 찾고 짧은글을 지으시오.
3. 제한의 뜻과 끝점을 나타내는 도움토를 찾고 짧은글을 지으시오.

17. 존경토, 복수토, 시간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존경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할아버지는 저녁차로 평양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시였습니다.

여기서 《가시였습니다》의 《시》는 말하는 사람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인것이다.

존경토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는것을 나타내는 토이다. 존경토로서는 《시(으시)》 하나가 있다.

존경토가 나타내는 존경의 뜻과 높임의 맺음토가 나타내는 존경의 뜻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존경토는 단어로 표현된 행동, 상태, 사실의 주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지만 높임의 맺음토는 듣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 영철아, 할아버지가 오시였다.

◯ 할아버지, 영철이가 왔습니다.

여기서 《오시였다》의 《시》는 말하는 사람이 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것을 나타내고있으며 《왔습니다》의 《습니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즉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존경토는 말하는 사람이 행동, 상태, 사실의 주인을 존경한다는것을 나타내는 토이기때문에 자기자신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붙이지 않는다. 그러므로《제가 존경하시는 선생님에게》나《제가 이름 부르시는분들은 이앞으로 나와주십시오.》와 같은 표현은 잘못된것이다.

△ 복수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모임에는 교원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서 《교원들》, 《학생들》, 《학부형들》의 《들》은 《교원》, 《학생》, 《학부형》이 두명이상이라는것을 나타낸다.

복수토란 이와 같이 사람이나 물건 또는 그밖의것들이 둘이상

여럿이라는것을 나타내는 토이다. 복수토에는 《들》 하나가 있다.

복수토는 체언토이지만 명사와 일부 대명사에 붙고 동사, 형용사, 부사에도 붙는 때가 있다.

○ 나라잃은 망국노가 되였던 지난날에는 이 동네에서만도 열집나마 정처없이 고향땅을 떠나들 갔다.

○ 그 동네에서 입대한 동무들은 모두 용감하게들 싸웠습니다.

○ 이 학교에서 입대한 동무들은 다 잘들 싸웠습니다.

이때에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로 표현된 행동, 상태의 주인이 복수라는것을 나타낸다.

우리 말에서는 문장안에 《많다》, 《여러》와 같이 무엇이 여럿이라는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또는 그러한 단어가 없어도 이야기가 벌어지는 정황에 의하여 복수라는것이 명백할 때에는 구태여 복수토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 영철이네 집에도 책이 많다.

○ 전후 재더미우에서 첫삽을 뜨던 시기 우리에게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다.

○ 협동조합을 갓 조직할 때에는 농기구와 부림소가 모자랐으며 생활도 어려웠다.

△ 시간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철호의 얼굴에는 앞으로도 계속 최우등을 쟁취하겠다는 결심이 어리여있었다.

여기서 《쟁취하겠다》의 《겠》은 《쟁취하》는 행동을 앞으로 할것이라는것을 나타내는것이며 《어리여있었다》의 《었》은 《어리여있》는 행동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다는것을 나타내는것이다.

시간토란 단어로 표현된 행동, 상태, 사실이 있은 시간을 나타내는 토이다. 시간토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토로서 《았(었, 였)》이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토로서 《겠》이 있다. 현재를 나타내는 토는 따로 없고 맺음토 그자체가 현재시간의 뜻을 함께 나타낸다.

과거— 보았다, 보시였다

미래— 보겠다, 보시겠다

현재— 본다, 보신다

줄기의 끝소리가 모음 《ㅏ》나 《ㅓ》인 단어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

간토 《았(었)》이 붙으면 겹쳐지는 《ㅏ》, 《ㅓ》가운데서 하나만 쓰고 다른 하나는 쓰지 않으며 발음할 때에도 하나만 발음한다.

○ 가다→가았다→갔다

○ 서다→서었다→섰다

련습

1. 존경토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존경토의 쓰임에서 류의할 점은 무엇인가를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복수토, 시간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다음문장에서 존경토, 복수토, 시간토를 찾으시오.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이 해놓은 작은 일을 이처럼 기특하게 여기시며 분에 넘친 치하까지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18. 규정토와 상황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규정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규정토는 용언과 체언에 붙어서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해주면서 동시에 시간의 뜻도 함께 나타내는 토이다.

규정토에는 《는》, 《ㄴ(은)》, 《ㄹ(을)》, 《던》의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규정토는 어떤 품사에 붙으며 어떤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가가 다 다르다.

《는》은 동사에 붙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행동이라는것을 나타낸다.

《는》은 형용사나 체언에는 붙지 않는다.

○ 가는 사람

○ 읽는 책

《ㄴ(은)》은 동사에도 붙고 형용사와 체언에도 붙는다. 《ㄴ》은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붙으며 《은》은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는다.

《ㄴ(은)》은 동사에 붙을 때와 형용사나 체언에 붙을 때 나타내는 시간의 뜻이 다르다. 동사에 이 토가 붙으면 과거를 나타내며 형용사나 체언에 붙으면 현재를 나타낸다.

○ 본 책, 읽은 책 (과거)
동사 동사

○ 흰 종이, 붉은 종이 (현재)
형용사 형용사

○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
체언

《던》은 용언과 체언에 다 붙어서 과거의 행동, 상태, 사실이 일정한 시간 지속된다는것을 나타낸다.

○ 가던 사람

○ 희던 종이

○ 로동자이던 동무

《ㄹ(을)》은 동사와 형용사에 붙어서 미래의 행동,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ㄹ》은 받침이 없이 끝난 단어에 붙으며 《을》은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는다.

○ 갈 사람, 읽을 책

○ 흐릴 하늘, 맑을 하늘

규정토 《ㄹ(을)》은 때로 시간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하기만 하거나 추측의 뜻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함께 있던 동무이다.(규정하는 역할만 하고있다.)

○ 굶주리고 신음하고있을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추측의 뜻만을 나타내고있다.)

○ 길짐승(규정하는 역할만 하고있다.)

△ 상황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상황토는 용언에 붙어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토이다.

상황토에는 《게》, 《도록》, 《ㄹ수록》, 《듯》, 《듯이》가 있다.

《게》는 용언에 붙어서 행동, 상태의 방식이나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소년유격대를 무어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도록》은 《게》와 마찬가지로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데 좀 다른것은 끝점에 이른 방식이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 해방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뼈가 빠지도록 일하였으나 종시 제 땅 한뙈기 가져보지 못하였다.

《ㄹ수록》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 사실이 다른 행동이나 상태, 사실에 비례하여 더해진다는것을 나타낸다.

○ 조국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

《듯》, 《듯이》는 어떤 행동, 상태, 사실을 다른 행동, 상태, 사실과 비교하는 뜻을 나타낸다. 이 토는 용언과 체언에 다 붙으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규정토의 뒤에 붙기도 한다.

○ 갖은 고초 다 이겨내며 꿋꿋이 싸워온 항일투사들의 모습인듯 바람세찬 눈속에서도 곱게 핀 백두산의 만병초.

련습

1. 다음문장에서 규정토를 찾고 그것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꼭같은 이름, 꼭같은 나이의 애들도 많았다. 그들가운데서 그 애와 비슷한 한 아이를 찾아냈다. 이때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녀전사의 사촌동생을 잘 아는 가까운 친척과 함께 그 애를 찾아가보도록 하시였다.

2. 다음문장에서 상황토를 찾고 그것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너구리는 고개마루에서 눈이 빠지도록 사슴을 기다렸다.

   ○ 고슴도치부대는 용감하게 싸워 도적놈들을 모조리 물리쳤다.

3. 규정토와 상황토를 각각 2개씩 찾고 그것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시오.

19. 상토와 바꿈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상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학생들이 새로 출판된 혁명소설을 읽는다.

○ 교원이 학생들에게 새로 출판된 혁명소설을 읽힌다.

○ 새로 출판된 혁명소설이 학생들속에서 널리 읽히운다.

여기서 첫 문장의 《읽는다》는 《학생들》이 《읽》는 행동을 제스스로 한다는것을 나타내고있고 둘째 문장의 《읽힌다》는 《교원》이 《읽》는 행동을 남에게 시킨다는것을 나타내고있으며 셋째 문장의 《읽히운다》는 《혁명소설》이 《읽》는 행동을 입는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읽는다》처럼 행동을 제스스로 한다는것을 나타낼 때에는 맺음토밖에 아무 토도 붙지 않는다. 그러나 《읽힌다》처럼 행동을 남에게 시킨다는것을 나타낼 때에는 《히》가 붙으며 《읽히운다》처럼 행동을 입는다는것을 나타낼 때에도 《히우》가 붙는다.

상토란 《읽힌다》의 《히》나 《읽히운다》의 《히우》와 같이 동사에 붙어서 행동을 남에게 시킨다든가 남에게서 입는다든가 하는 뜻을 나타내는 토를 말한다.

상토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히우》, 《기우》, 《리우》, 《으키》, 《이키》가 있다.

그런데 이 상토들가운데는 시킴을 나타내는 토와 입음을 나타내는 토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의 상토가 어떤 때에는 시킴의 뜻을 나타내고 또 어떤 때에는 입음의 뜻을 나타내는 등으로 섞갈려 쓰인다.

○ 철이는 아버지에게 성적증을 보이였다. (시킴)

○ 둔덕에 올라서니 온 시내가 한눈에 보이였다. (입음)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꼭같은 상토 《이》가 첫째 문장에서는 시킴의 뜻을 나타내고있고 둘째 문장에서는 입음의 뜻을 나타내고있다.

매 상토가 붙은 단어를 례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녹이다, 놓이다, 늘이다, 덮이다, 먹이다, 보이다, 붙이다, 줄이다, 짚이다, 쓰이다

히: 걷히다, 막히다, 묻히다, 맺히다, 뽑히다, 앉히다, 익히다, 입히다

기: 감기다, 남기다, 넘기다, 맡기다, 뜯기다, 쫓기다, 찢기다
리: 날리다, 말리다, 밀리다, 살리다, 흘리다, 올리다
우: 메우다, 세우다, 재우다, 뛰우다
구: 돋구다, 솟구다
히우: 밟히우다, 묻히우다, 뽑히우다, 앉히우다, 읽히우다
기우: 뜯기우다, 씻기우다, 쫓기우다, 찢기우다
리우: 갈리우다, 말리우다, 찔리우다
으키: 일으키다
이키: 돌이키다

△ 바꿈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바꿈토는 체언을 용언처럼, 용언을 체언처럼 바꿔쓰게 해주는 토이다.

바꿈토에는 체언에 용언토가 붙을수 있도록 해주는 바꿈토와 용언에 체언토가 붙을수 있도록 해주는 바꿈토가 있다.

체언에 용언토가 붙을수 있도록 해주는 바꿈토로서는《이》가 있다.

○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여기서 체언인《무장력》에는 용언토인 맺음토《다》가 직접 붙을수 없기때문에 그것이 붙을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것이 《이》이다.

용언에 체언토가 붙을수 있도록 해주는 바꿈토로서는《ㅁ(음)》과 《기》가 있다.

○ 나는 야영소를 떠남에 앞서 집에 편지를 썼다.

여기서 용언인《떠나다》에는 체언토인 여격토《에》가 직접 붙을수 없기때문에 그것이 붙을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것이 《ㅁ》이다.

《ㅁ》은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붙고《음》은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는다.

○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여기서 《일하다》와 《살다》는 용언이기때문에 체언토인 도움토《도》가 직접 붙을수 없어서 그것이 붙을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것이 《기》이다.

련습

1. 어떤 행동을 남에게 시킴을 나타내는 상토와 입음을 나타내는 상토가 들어간 짧은글을 각각 한개씩 짓고 상토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2. 바꿈토가 들어간 짧은글을 짓고 그것이 어떻게 되여 바꿈토로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3. 다음문장에서 상토와 바꿈토를 찾고 그것이 어떤 뜻을 나타내였는가를 설명하시오.
   우리들이 즐겨읊는것은 모진 바람에 시달리고 눈서리에 파묻히였다가도 변함이 없이 푸른 빛을 떨치면서 새봄을 맞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꿋꿋한 기상이 풍겨오는 김형직선생님의 시구절입니다.

복 습

1. 다음문장들을 비교하면서 격토를 쓴 때와 도움토를 쓴 때에 뜻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순희는 노래를 잘 부른다.
   순희는 노래도 잘 부른다.
   ○ 영수가 왔다.
   영수만 왔다.
   ○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나라가 있다.
   마실 물마저 없어 고생하는 나라가 있다.
   ○ 철호가 공부를 잘한다.
   철호가 공부는 잘한다.
2. 다음문장들에서 복수토가 어느 품사에 붙었는가를 밝히고 이 경우 무엇이 복수라는것을 나타내고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자, 어서들 한탕 뛰여봅시다.
   ○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들 갑시다.
   ○ 걸으면서들 이야기하자.
   ○ 이러지들 마세요, 진정하세요, 이 가슴에도 복수의 피가 끓어요.

3. 다음문장들에서 바꿈토를 찾고 그것이 어떤 구실을 하고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아까보다 달리기가 훨씬 쉬워졌다.

○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자.

○ 몇해전까지만 해도 철부지이던 광혁이가 공화국영웅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 불덩어리를 안고 쏜살같이 나가는 저 전사는 과연 누구일가?

4. 다음문장들에서 규정토와 상황토를 찾고 그것들이 각각 그 문장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왼쪽으로 뻗은 길은 리명수로 가는 길이였고 오른쪽으로 난 길은 삼지연으로 가는 길이였기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다.

○ 나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 그 대목은 누구나 다 힘들게 생각하도록 되였다.

20.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이란 어떤 문장인가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 만경대는 아름답다.

우의 문장은 만경대가 아름답다는것을 알리는 문장이다.

○ 동무는 평양에 언제 갑니까?

우의 문장은 평양에 언제 가는가를 물어보는 문장이다.

○ 애야, 전등을 꺼라.

우의 문장은 전등을 끄라고 시키는 문장이다.

○ 우리모두 최우등생이 됩시다.

우의 문장은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자고 추기는 문장이다.

이와 같이 문장은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문장이 될수도 있고 무엇을 물어보는 문장이 될수도 있으며 또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문장이 될수도 있고 무엇을 함께 하자고 추기는 문장이 될수도 있다.

우리 말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한 말인가에 따라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으로 나누인다.

△ 알림문

알림문이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알리는 문장이다.

○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 우리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참된 소년근위대입니다.

알림문은 알림을 나타내는 맺음토들인《습니다, 입니다, 다오, 다, 지요》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알림문의 억양은 문장의 끝에서 낮아진다.

○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허리를 펴시고 크게 웃으시였다.

글에서는 알림문의 뒤에 점을 친다.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을 따사로운 품에 안아주시였다.

△ 물음문

물음문이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문장이다.

○ 지금은 몇시입니까?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물음문은 물음을 나타내는 맺음토들인《습니까, 입니까, 느냐, 니》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물음문의 억양은 문장의 끝에서 올라간다.

○ 오늘이 금요일입니까?

그러나 문장에 《누구》, 《언제》, 《어디》, 《몇》과 같은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단어에서 억양이 높아졌다가 문장의 끝에서는 약간 낮아진다.

○ 우리는 회령에 언제 갑니까?

글에서는 물음문의 뒤에 물음표를 친다.

○ 기차가 몇시에 떠납니까?

△ 시킴문

시킴문이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요구하는 문장이다.

○ 순희야, 아무쪼록 공부를 잘해라.

○ 이 책을 래일까지 보십시오.

시킴문은 시킴을 나타내는 맺음토들인 《라, 십시오, 시오, 세요》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시킴문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가에 따라 억양이 여러가지로 달라진다.

○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격분에 찬 어조로)

○ 할아버지, 편히 주무십시오.(부드럽고 존대스러운 어조로)

글에서는 시킴문의 뒤에 점을 친다. 그러나 시킴의 뜻을 강하게 나타낼 때에는 느낌표를 친다.

○ 어서 들어오세요.

○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라!

△ 추김문

추김문이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자기와 함께 할것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 모두 학습반에 가자요.

○ 동무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간직합시다.

추김문은 추김을 나타내는 맺음토들인《ㅂ시다, 자요, 자꾸나, 지》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추김문은 여러가지로 추기는 억양이 붙는다.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자!(호소하는 억양)

○ 모두 조용들 하자요.(바라는 억양)

글에서는 추김문의 뒤에 점을 친다. 그러나 추김의 뜻을 강하게 나타낼 때에는 느낌표를 친다.

○ 우리 함께 그림책을 보자요.

○ 여러분,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싸웁시다!

△ 느낌문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을 강한 느낌의 억양으로 발음하면 느낌문이 된다.

○ 아이, 오빠가 왔군요！(알림문이면서 느낌문)

○ 얼마나 와보고싶던 백두산입니까！(물음문이면서 느낌문)

○ 미제승냥이놈들을 끝까지 소멸하라！(시킴문이면서 느낌문)

○ 이번 학기에도 꼭 최우등을 합시다！(추김문이면서 느낌문)

글에서는 느낌문의 뒤에 느낌표를 친다.

○ 우리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련습

1. 다음문장이 이야기의 목적으로 볼 때 무슨 문장인가 말하시오.
   ○ 동무들의 성과를 축하합니다.
   ○ 나는 크거들랑 용감한 인민군대가 될테야.
   ○ 오늘 몇시에 야영소로 떠납니까？
   ○ 자, 우리모두 농장원들의 일손을 돕자요.
   ○ 어서 오십시오.
2. 다음단어로 알림문과 물음문을 지으시오.
   투쟁, 효성
3. 다음 두개의 단어를 한문장안에 넣어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을 지으시오.
   ㄱ. 조국, 번영
   ㄴ. 자애롭다, 해빛

21. 문장성분이란 무엇이며 문장성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 문장성분이란 무엇인가

문장을 이루고있는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다른 단어들과 서로 맞물리면서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한다.

○ 우리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 문장을 이루고있는 매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다른 단어들과 맞물려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우리는—사랑한다
조국을—사랑한다
열렬히—사랑한다

○ 누가 사랑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열렬히
우리는 어찌하는가?— 사랑한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은 《사랑한다》와 맞물리면서 《누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고 《조국을》은 《사랑한다》와 맞물리면서 《무엇을?》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으며 《열렬히》는 《사랑한다》와 맞물리면서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고 《사랑한다》는 《우리는》과도 맞물리고 《조국을》과도 맞물리고 《열렬히》와도 맞물리면서 《어찌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와 같이 문장성분이란 문장안에서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갈라진 단어 또는 단어결합을 말한다.

우에서 례든 문장에서는《우리는》,《조국을》,《열렬히》,《사랑한다》가 다 각각 문장성분이다.

△ 문장성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문장성분에는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가 있다.

— 주어

주어란 술어와 맞물리면서 《누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 우리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다.

○ 우리 조국은 아름답다.

○ 우리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여기서는 밑줄을 친 《우리는》, 《조국은》, 《조국은》이 각각 주어이다.

첫째 문장에서는《우리는》이 술어인 《사랑한다》와 맞물리면서《누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고 둘째 문장에서는《조국은》이 술어인《아름답다》와 맞물리면서《무엇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문장에서는《조국은》이 술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와 맞물리면서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다.

— 술어

술어란 문장안의 다른 성분들을 다 자기에게 맞물리게 하면서《어찌하는가?》, 《어떠한가?》, 《무엇인가(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 우리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다.

○ 우리 조국은 아름답다.

○ 우리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여기서는 밑줄을 친 《사랑한다》, 《아름답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가 각각 술어이다.

첫째 문장에서는 술어인《사랑한다》가《우리는》,《조국을》,《열렬히》를 다 자기에게 맞물리게 하면서《어찌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고 둘째 문장에서는 술어인 《아름답다》가 《조국은》을 자기에게 맞물리게 하면서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문장에서는 술어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가《조국은》을 자기에게 맞물리게 하면서《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다.

술어는 문장안의 다른 성분들을 다 자기에게 맞물리게 하는 성분이다. 그리고 다른 성분들은 없어도 대체로 문장이 이루어질수 있으나 술어가 없으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술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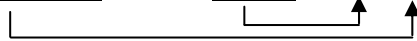
문장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성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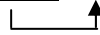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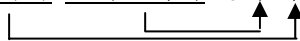
술어가운데서 맺음토로 끝나고 문장의 맨뒤에 놓인 술어를 맺음술어라고 부르며 이음토로 끝나고 문장의 중가운데에 놓인 술어를 이음술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용언술어라고 부르고 명사나 수사,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체언술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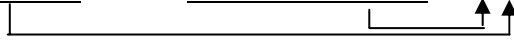
— 보어

보어란 술어와 맞물리면서 《무엇을(누구를)?》, 《무엇에(누구에게)?》, 《무엇으로(누구로)?》, 《무엇과(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이라고(누구라고)?》 등 여러가지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대체로 용언술어와 맞물리는 체언성분으로서 주어를 제외한 것은 다 보어이다.

○ 우리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다.

○ 당과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고있다.

○ 우리는 당의 은정에 최우등으로 보답하겠다.

○ 철수의 키는 영호와 같다.

○ 우리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였다.

○ 철수는 학교로 갔다.

○ 세상사람들은 예로부터 조선을 동방례의지국이라고 불러왔다.

여기서 밑줄을 친 《조국을》, 《학생들에게》, 《은정을》, 《은정에》, 《최우등으로》, 《영호와》, 《어제》, 《도서관에서》, 《학교로》,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이라고》가 각각 보어이다.

첫째 문장에서는 《조국을》이 술어인 《사랑한다》와 맞물리면서 《무엇을》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고 둘째 문장에서는 《학생들에게》와 《은정을》이 술어인 《돌려주고있다》와 맞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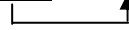
리면서 각각 《누구에게？》와 《무엇을？》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문장에서는《은정에》와《최우등으로》가 술어인《보답하겠다》와 맞물리면서 각각《무엇에？》,《무엇으로？》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넷째 문장에서는 《영호와》가 술어인 《갈다》와 맞물리면서 《누구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다섯째 문장에서는《어제》와《도서관에서》가 술어인《공부하였다》와 맞물리면서 각각《언제？》,《어디에서？》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고 여섯째 문장에서는 《학교로》가 술어인 《갔다》와 맞물리면서 《어디로？》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일곱째 문장에서는《예로부터》,《동방례의지국이라고》가 술어인《불러왔다》와 맞물리면서《언제？》,《무엇이라고？》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다.

— 상황어

상황어란 술어와 맞물리면서《어떻게？》,《얼마나？》등의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 우리는 하나를 배워도 실속있게 배워야 한다.

◯ 삼지연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

◯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여기서 밑줄을 친 《실속있게》, 《볼수록》, 《많이》 등이 각각 상황어이다.

첫째 문장에서는 《실속있게》가 술어인 《배워야 한다.》와 맞물리면서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고 둘째 문장에서는《볼수록》이 술어인《아름답다》와 맞물리면서《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문장에서는《많이》가 술어인 《읽어야 한다.》와 맞물리면서 《얼마나？》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다.

— 규정어

규정어란 체언성분들인 주어, 보어, 체언술어 등과 맞물리면서 그에 대하여 《어떤？》, 《어느？》, 《무엇의(누구의)？》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 우리 인민은 지난날 나라없는 설음을 안고 뼈아픈 고통만을 강요당하였다.

○ 보천보의 밤하늘에 해방의 홰불이 높이 올랐다.

○ 조선인민은 용감한 인민이다.

여기서 밑줄을 친 《우리》, 《나라없는》, 《뼈아픈》, 《보천보의》, 《해방의》, 《용감한》 등이 규정어이다.

첫째 문장에서는《우리》가 주어인《인민은》과 맞물리면서 그에 대하여 《어느？》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고《나라없는》은 보어인 《설음을》과 맞물리면서 《어떤？》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뼈아픈》은 보어인 《고통만을》과 맞물리면서《어떤？》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둘째 문장에서는 《보천보의》, 《해방의》가 보어인 《밤하늘에》, 《홰불이》와 맞물리면서 《무엇의？》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문장에서는《용감한》이 체언술어인 《인민이다》와 맞물리면서 《어떤？》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본 문장성분들인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들은 모두 문장안에서 다른 문장성분들과 맞물림관계를 맺고있으며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다. 이와 같이 문장안에서 다른 문장성분들과 맞물림관계를 맺고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들을 《맞물린성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장성분들가운데는 맞물린성분밖에 다른 문장성분과 그 어떤 맞물림관계도 맺지 않고 아무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는 문장성분이 있다. 그러한 문장성분을 《외딴성분》이라고 한다.

련습

1. 다음문장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각각 어느 단어와 맞물렸으며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옥이는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공부한다.
   ○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다.
2. 다음문장을 문장성분들로 가르고 그것들이 각각 무슨 성분인가

를 설명하시오.

○ 우리는 유서깊은 만경대에 가보았다.
○ 날이 밝는다. 백두의 밀림에서 새날이 밝는다.
○ 그는 평소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미국놈과 맞다드니 사자처럼 사나왔다.
○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최우등을 했는가고 묻기에 최우등을 했다고 대답했다.

22. 단일문과 복합문이란 어떤 문장인가

○ 나는 중학교 학생이다.
주어 술어

여기에는 《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한번 있다.

○ 나는 중학교 학생이고 형님은 대학생이다.
주어 술어 주어 술어

여기에는 《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두번 있다.

첫째 문장처럼 《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한번 있는 문장을 단일문이라고 하며 둘째 문장처럼 《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두번 또는 그 이상 있는 문장을 복합문이라고 한다.

주어가 하나 있고 그것과 맞물림관계를 맺는 술어가 둘 또는 그 이상인 문장은 단일문이다. 그리고 주어가 둘 또는 그 이상 있고 그것들과 맞물림관계를 맺는 술어가 하나인 문장도 단일문이다.

○ 우리는 분단모임을 끝내고 협동벌로 달려나갔다.
주어 술어 술어

○ 모내기철에는 사무원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한다.
주어 주어 주어
술어

복합문이 되려면 주어가 둘이상 있고 그것들과 각각 맞물림관계를 따로따로 맺는 술어가 둘이상 있어야 한다.

단일문과 복합문의 차이는 문장이 짧은가 긴가, 단순한가 복잡한가 하는데 있지 않다. 문장이 길고 복잡하여도 《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한번밖에 없으면 단일문이며 문장이 짧고 단순하여도 《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두번이상 있으면 복합문이다.

○ 미제침략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똑똑히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새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하루속히 물러가야 한다.

○ 자동차가 가고 뜨락또르가 온다.

○ 세대는 바뀌여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첫째 문장은 길이도 길고 문장내용도 복잡하지만 그안에《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한번밖에 없으므로 단일문이다. 그러나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은 길이도 비교적 짧고 문장내용도 비교적 단순하지만《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가 두번 있으므로 복합문이다.

련습

1. 단일문과 복합문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다음문장에서 《주어—술어》의 맞물림관계를 찾아내고 그 문장이 단일문인가 복합문인가를 말하시오.

○ 우리는 초막에서 전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 나의 희망도 나의 행복도 나의 생명도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구슬이 쏟아지는듯 바위를 스쳐내린다.

○ 우리가 미국놈들을 족치던 이야기를 하자 소년단원들은 손벽을 치면서 좋아했다.

복　습

1. 다음문장을 문장성분들로 가르고 매 문장성분들이 각각 어느 성분과 맞물려있으며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무슨 성분인가를 말하시오.

○ 책은 우리에게 귀중한 지식을 풍부하게 준다.

○ 이 고장 사람들도 해방전에는 거의 문맹자였다.

○ 우리는 저 산을 승리산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야 한다.

2. 다음문장에 들어있는 매 문장성분들에 물음을 주고 맞물린성분과 외딴성분을 가르시오.
○ 듣자니 순희동무는 최우등생이라면서요?
○ 선생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 아닌게아니라 범바위골은 이름과 같이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이였다.
○ 오, 보천보, 혁명의 성지에 아침해살 비친다.
○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

3. 다음문장들이 단일문인가 복합문인가를 가르시오.
○ 당, 당은 우리의 심장이며 뇌수이다.
○ 감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나래돋친듯 온 마을에 퍼져갔다.
○ 강철은 불속에서 단련되고 혁명가는 투쟁속에서 자라난다.
○ 인민들이 단결하자면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
○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있는 뭇별들이 대지를 내려다보며 반짝거리였다.

23. 합친말과 줄어든말은 어떻게 적는가

△ 합친말은 어떻게 적는가

합친말은 둘이상의 말뿌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 가보다, 샘물터, 솔잎냄새
우리 말에는 이러한 합친말들이 아주 많다.
그러면 합친말은 어떻게 적는가.
합친말은 말뿌리들이 합쳐지기 이전의 본래모양대로 적는다.
례를 들어《쇠돌산》을 놓고보자.

발음은 〔쇧똘산〕으로 된다. 그러나《쇠돌산》은《쇠》라는 말뿌리와《돌》이라는 말뿌리 그리고《산》이라는 말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친말이다.

그러므로 발음은 비록〔쇧똘산〕으로 되지만 적기는 합쳐지기

이전의 말뿌리들의 본래모양인 《쇠》와 《돌》 그리고 《산》을 각각 그대로 밝혀 《쇠돌산》이라고 적어야 한다.

○ 부엌문〔부엉문〕→（부엌＋문）→부엌문

○ 부채살같이〔부채쌀가치〕→（부채＋살＋같이）→부채살같이

○ 흩날리다〔흔날리다〕→（흩어지다＋날리다）→흩날리다

△ 줄어든말은 어떻게 적는가

줄어든말이란《슬기론》(슬기로운)과 같이 단어안의 어느 한 소리마디가 줄어든 말이다.

○ 산골짝（산골짜기），없었죠（없었지요），아버진（아버지는）

줄어든말에는 《맘》(마음)，《예까지》(여기까지）와 같이 말뿌리가 줄어들어 만들어진것도 있고《아침핸가요》(아침해인가요)，《창밖에선》(창밖에서는)과 같이 토가 줄어들어 만들어진것도 있다.

그러면 줄어든말은 어떻게 적는가.

줄어든말은 줄어든대로 적는다.

○ 뵙고싶다（뵈옵고싶다），나눠주다（나누어주다），아나봐요（아나보아요）

줄어든말은 줄어든대로 적되 무엇이 줄어들었는가를 알수 있도록 줄어든것을 바로잡아 적어야 한다.

례를 들어《기럭아 기럭아》라면 이 말은《기러기야 기러기야》에서 《ㅣ》가 각각 줄어든 말이다.

그러므로 《러》자에 각각 《ㄱ》받침을 하여 《기럭아 기럭아》라고 적은것과 같이 줄어든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잡아 적어야 한다.

○ 창밖에선（창밖에서는），슬기론（슬기로운），돌봐줘요（돌보아주어요），저걸（저것을），뵙곺은（뵈옵고싶은）

련습

1. 다음합친말들을 발음하여보고 왜 발음하는대로 적지 않는가를 설명하시오.

   노을빛，앞서다，빛나다

2. 줄어든말을 5개이상 찾아 말하시오.

3. 다음줄어든말에서 무엇이 줄어들었는가를 찾고 줄어든것을 어떻

게 적었는가를 말하시오.
뒤뜰안엔, 뭐나요, 되였죠

24. 뒤붙이 《이》가 붙어 만들어진 본딴말은 어떻게 적는가

본딴말이란 소리나 모양을 본따서 만든 말이다.

우리 말에는 본딴말에 뒤붙이《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들이 적지 않다.

례를 들어 《꿀꿀이》나 《짤룩이》와 같은 말들이다.

《꿀꿀이》는 돼지가《꿀꿀》거린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지은것이고 《짤룩이》는 개미의 허리가 짤룩하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지은것이다.

그러면 본딴말에 뒤붙이《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는 어떻게 적는가.

본딴말에 뒤붙이《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는 그《이》를 밝혀적는 경우도 있고 밝혀적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떤 때 뒤붙이《이》를 밝혀적고 어떤 때《이》를 밝혀적지 않고 소리나는대로 적는가.

돼지를《꿀꿀이》라고 하고 개미를《짤룩이》라고 하는것처럼 본래 가지고있는 이름대신에 그 소리나 모양을 본따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이》를 밝혀적는다.

《빡빡이》는 오리라는 이름대신에 불리운 이름이고《꿀꿀이》는 돼지라는 이름대신에 불리운 이름이다.

《멍멍이》와《야옹이》,《깡충이》,《뚜거덕이》와 같은 말들은 모두 그렇게 지어진 이름들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를 때 어떻게 이름짓는가를 보면 그 리치를 똑똑히 알수 있다.

우리는 흔히 알뜰한 사람을《알뜰이》라고 하고 착실한 사람을 《착실이》 등으로 이름짓는것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본래의 이름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반드

시 이름을 만드는데 붙어쓰이는 뒤붙이 《이》를 밝혀적는다.

그러나 《기러기》나 《개미》와 같은 이름들은 다른 이름이 없고 본래부터 그렇게 불러오는 이름들이다.

이런 때에는 《이》를 밝혀적지 않고 소리나는대로 적는다.

《개구리》, 《뻐꾸기》, 《꾀꼬리》, 《딱따구리》, 《귀뚜라미》, 《깍두기》, 《두드러기》와 같은 말들이 모두 그런 말들이다.

련습

다음글에서 꿀꿀이가 누구들의 이름을 잘못 썼는가를 찾고 왜 그것이 틀렸는가를 말하시오.

○ 꿀꿀이네 집에서는 꼴꼴이의 생일잔치를 준비하고있었습니다.
어느날 꿀꿀이는 멀고 가까운 동네마다에 보낼 초청장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수골 맴이 앞. 돌아오는 초닷새날이 우리 꼴꼴이의 생일일세. 꼭 오기를 바라네. 꿀꿀이》
《도토리골 다라미 앞…》
《풍년골 개구리 앞…》
이렇게 연신 써나가다가 싫증을 느낀 꿀꿀이는 그만 좋은 수가 생각났던지 무릎을 탁 치며 《청산골 꾀꼴이 앞…》하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걸음도 빠른데 같은 마을 딱따굴이며 뻐꾹이, 풀밭골 귀뚜람이와 찌르럭이, 꿀떡골 알락이며 개미골 짤루기들에게도 꼭 좀 전해주게나. 그리고 참 과수골 쓰르람이를 잊을번 했네. 꿀꿀이》

25. 소리가 달라진 말과 받침이 달라지는 말은 어떻게 적는가

△ 소리가 달라진 말은 어떻게 적는가

우리 말에는 소리가 달라진 말이 있다.

례를 들어 《버드나무》와 《이튿날》, 《좁쌀》과 같은 말이 그러하다.

《버드나무》는 원래 《버들》이라는 말뿌리가 《나무》라는 말뿌리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데 《버들》에서 《ㄹ》이 줄어들어 《버드나무》로 된것이다.

그리고 《이튿날》은 《이틀》이라는 말뿌리와 《날》이라는 말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틀》에서 《ㄹ》이 《ㄷ》으로 바뀌여 《이튿날》로 된것이다.

또한 《좁쌀》은 《조》라는 말뿌리와 《쌀》이라는 말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여기에 《ㅂ》이 보태여져 《좁쌀》로 된것이다.

소리가 달라진 말에는 소리가 줄어든것, 바뀐것, 보태여진것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소리가 줄거나 바뀌거나 보태여지면서 달라진 말을 소리가 달라진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리가 달라진 말은 어떻게 적는가.

소리가 달라진 말은 달라진대로 적는다.

○ 부삽（불＋삽），화살（활＋살），부나비（불＋나비）(소리가 줄어든것）

○ 숟가락（술＋가락），섣달（설＋달），안팎（안＋밖）(소리가 바뀐것）

○ 찹쌀（차＋쌀），멥쌀（메＋쌀）(소리가 보태여진것）

△ 받침이 달라지는 말은 어떻게 적는가

우리 말에는 받침이 달라지는 말도 있다.

례를 들어 《걷다—걸어》에서 《ㄷ》받침이 《ㄹ》받침으로 바뀌였거나 《곱다—고와》에서 《ㅂ》받침이 빠지고 《나르다—날라》에서 《ㄹ》받침이 보태여진것과 같은 말들이다.

받침이 달라지는 말에는 받침이 바뀌는것, 빠지는것, 보태여지는것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받침이 달라지는 말은 어떻게 적는가.

받침이 달라지는 말은 달라지는대로 적는다.

○ 묻다, 묻고, 묻지—물으니, 물어
듣다, 듣고, 듣지—들으니, 들어

걷다, 걷고, 걷지—걸으니, 걸어

(받침이 바뀌는것)

○ 젓다, 젓고, 젓지—저으니, 저어

낫다, 낫고, 낫지—나으니, 나아

덥다, 덥고, 덥지—더우니, 더워

(받침이 빠지는것)

○ 오르다, 오르고, 오르지—올라

부르다, 부르고, 부르지—불러

가르다, 가르고, 가르지—갈라

(받침이 보태여지는것)

련습

1. 다음 소리가 달라진 말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만들어진 말인가를 찾아 말하시오.
   사흗날, 소나무, 휘파람, 머리카락, 미닫이
2. 다음단어들에서 받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하시오.
   싣다, 뵙다, 빠르다, 즐겁다, 잇다

복　　습

1. 다음단어들을 왜 발음대로 적지 않는가를 말하시오.
   물안개(무란개), 꽃보라(꼳뽀라)
2. 줄어든말을 5개이상 찾고 무엇이 줄어들었는가를 말하시오.
3. 본딴말에 뒤붙이《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에서 어떤 때《이》를 밝혀적고 어떤 때 소리나는대로 적어야 하는가를 례를 들어 말하시오.
4. 다음단어들에서 맞춤법이 틀린것을 찾고 왜 틀렸는가를 말하시오.

5. 다음단어들의 본래모양은 무엇이며 소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하시오.

화살, 좁쌀, 숟가락, 마소, 부삽, 보조개, 안팎, 나날이, 나흗날

26. 울림소리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으며 《ㅅ》받침은 어떤 때 쓰는가

△ 울림소리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는가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에는《ㄴ》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ㄹ》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ㅁ》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ㅇ》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이렇게 네가지가 있다.

그러면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은 어떻게 적는가.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은 된소리 그대로 적는다.

◯ 번쩍번쩍, 문뜩, 선뜻 (《ㄴ》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 골짜기, 말끔히, 살짝 (《ㄹ》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 깜짝, 깜빡거리다, 함뿍 (《ㅁ》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 몽땅, 빵끗거리다, 엉뚱하다 (《ㅇ》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

△ 《ㅅ》받침은 어떤 때 쓰는가

우리 말에는 옛날부터 써오던대로《ㅅ》받침을 하여 적는 말들도 있다.

그러면 어떤 때 《ㅅ》받침을 쓰는가.

《ㅅ》받침은 받침《ㄷ, ㅌ, ㅅ, ㅆ, ㅈ, ㅊ》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밝혀적을 까닭이 없을 때 쓴다.

받침《ㄷ, ㅌ, ㅅ, ㅆ, ㅈ, ㅊ》은 그 끝소리가 언제나 다같이 〔ㄷ〕이다.

◯ ㄷ—디읃, ㅌ—티읕〔티읃〕, ㅅ—시읏〔시읃〕, ㅆ—된시읏〔된시읃〕, ㅈ—지읒〔지읃〕, ㅊ—치읓〔치읃〕

이 받침들은 〔ㄷ〕으로 발음되지만 언제나 자기 받침을 밝혀적게 되여있다.

○ 낟알, 낱낱이, 낫, 경사났다, 낮, 낯

그러나 《풋남새》나 《옛날》과 같은 말들에서는 그중 어느 하나로 밝혀적을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옛날부터 써오던대로 《ㅅ》받침을 하여 적는다.

○ 웃사람, 이웃집, 짓밟다, 햇솜, 못하다, 멈칫하다, 머뭇거리다, 파릇파릇, 두릿두릿, 못내, 그까짓, 샛별

련습

1. 다음단어들에서 맞춤법이 맞는 단어를 찾고 왜 그렇게 적는가를 말하시오.

깔대기	갑짜기	글썽해하다	숨박곡질	언뜻언뜻
깔때기	갑자기	글성해하다	숨박꼭질	언듯언듯

2. 다음단어들에서 《ㅅ》받침이 잘못 쓰인것을 찾고 바로잡으시오.
어엿하다, 였쭈다, 젓가락, 빼앗다, 기웃거리다, 쫠쫠하다, 어렴풋하다

복 습

1. 다음단어들에서 맞춤법이 틀린것을 찾고 왜 그렇게 적으면 틀리는가를 찾으시오.

댄듬	가지가지	맞임내	도토리
대뜸	갖이갖이	마침내	도톨이

2. 다음문장들에서 토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왜 그렇게 적는가를 말하시오.
○ 곡식은 익을쑤록 고개를 숙인다.
○ (어떻게 할까?)
순간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찌 생각나지 않았다.
○ 어린이들은 나라에 왕이다.
○ 조용하십시요.

3. 다음단어들에서 맞춤법이 옳은것을 찾고 왜 그렇게 적어야 하는가를 말하시오.

훨신	몹시	골자기	듬뿍	낚씨	손등
훨씬	몹씨	골짜기	듬북	낚시	손뜽

4. 다음단어들가운데서 《ㅅ》받침을 틀리게 적은 단어들을 찾아 바로잡으시오.
옏날, 파릇파릇, 묻새, 차렸하다, 몬내, 쐈, 그럴듯하다, 지긋하다, 두린두린, 빈바람

27.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띄여쓰는가

① 토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는 뒤에 오는 단어와 띄여쓴다.

○ 들어서 올리다, 용감한 소년, 붉게 타오르다

② 토 없는 말마디뒤에 동사 《하다, 되다, 시키다》와 《지다, 치다, 차다, 나다, 내다, 적다, 들다, 어리다, 답다, 겹다, 싸다, 맞다, 궂다》가 붙어 하나의 덩이로 된것은 붙여쓴다.

○ 일하다, 공부하다, 참되다, 구현되다, 련습시키다, 졸업시키다

○ 값지다, 멋지다, 굽이치다, 용솟음치다, 보람차다, 힘차다, 빛나다, 끝나다, 힘내다, 성내다, 멋적다, 객적다, 힘들다, 정들다, 피어리다, 기쁨어리다, 꽃답다, 청년답다, 흥겹다, 눈물겹다, 남자싸다, 어른싸다, 능청맞다, 방정맞다, 심술궂다, 험상궂다

③ 명사 《앞, 뒤, 곱, 겹》이 동사, 형용사와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 앞서다, 앞지르다, 뒤서다, 뒤늦다, 곱먹다, 곱들다, 겹쓰다, 겹놓다

④ 동사, 형용사의 말뿌리뒤에 동사, 형용사가 직접 붙은것은 붙여쓴다.

○ 가보다, 따먹다, 타죽다, 빼내다, 파헤치다, 서버리다, 만나보다, 자라나다, 지나가다, 떠나가다, 보내주다, 떠있다, 가있다

⑤ 다음의 경우는 두 단어사이에 토 《아, 어, 여》가 끼였다 하더라도 붙여쓴다.

— 두 단어사이에 토《아, 어, 여》가 끼였지만 그사이를 띄여쓰면 하나의 단어로 볼수 없는 경우

○ 자아내다, 일떠서다, 드나들다, 태여나다

— 외마디말뿌리로 된 동사나 형용사에 토《아, 어, 여》가 붙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

○ 해가다, 해내다, 껴안다, 써내다, 줴버리다, 떠내다

⑥《나, 니, 락, 다, 든, 궁, 듯》을 비롯한 일정한 토를 사이에 두고 동사나 형용사가 겹쳤을 때에는 붙여쓴다.

○ 가나오나, 자나깨나, 걷거니뛰거니, 이러니저러니, 높으락낮으락, 들락날락, 왔다갔다, 먹다말다, 이렇든저렇든, 가든오든, 이러쿵저러쿵, 줄듯말듯, 본숭만숭, 쓰디쓴, 넓고넓은, 높고낮은, 가네오네, 가리오리

련습

1. 다음단어들의 띄여쓰기를 바로잡고 그 까닭을 말하시오.

○ 노래 하다, 일 시키다, 영웅 되다

○ 얼룩 지다, 기운 차다, 겁 나다

○ 앞 당기다, 뒤 쫓다, 겹 쌓이다

2. 다음문장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찾고 띄여쓰기를 왜 그렇게 하였는가를 말하시오.

철수는 오늘도 자나깨나 보고싶은 남녘땅동무들을 생각하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28. 관형사, 부사, 감동사는 어떻게 띄여쓰는가

① 관형사, 부사, 감동사는 모두다 자립적인 단어이므로 뒤에 오는 단어와 띄여써야 한다.

○ 새 교과서, 온 학교, 모든 학생, 별의별 이야기, 맨 웃자리, 무슨 일, 어느 동무, 웬 사람, 온갖 남새 (관형사의 경우)

○ 찬찬히 보다, 먼저 가다, 무척 기다리다, 아주 훌륭하다, 가까이 왔다, 부지런히 공부하다, 정말 기쁘다 (부사의 경우)

○ 아, 조선아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린다! 오, 누리에 빛나는 태양이여!(감동사의 경우)

② 외마디관형사가 외마디명사와 결합된것은 붙여쓴다.

○ 첫날, 전당, 맨입, 매해, 옛날, 웬일

그러나 두마디의 관형사가 외마디명사와 결합된것은 띄여쓴다.

○ 무슨 말, 모든 일, 온갖 새, 외딴 섬

③ 부사들이 토없이 어울릴 때에는 붙여쓴다.

○ 가득가득, 서로서로, 거듭거듭, 살랑살랑, 더욱더, 이리저리, 또다시, 한층더, 모두다, 다같이

④ 부사에 명사가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 현상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 보슬비, 살짝공, 곱슬머리, 너털웃음, 뭉게구름

⑤ 토 없는 말마디뒤에 《같이, 없이, 높이, 깊이, 뜨거이, 뿌듯이》가 결합되여 하나의 부사처럼 쓰일 때에는 붙여쓴다.

○ 새벽같이, 한결같이, 꼭같이, 다시없이, 할수없이, 불길높이, 소리높이, 심장깊이, 가슴깊이, 가슴뜨거이, 가슴뿌듯이

련습

1. 다음문장들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그 까닭을 말하시오.

○ 모든책상을 다깨끗이 닦읍시다.

○ 여러고장에 새학교들이 많이 일떠섰다.

2. 다음문장에서 띄여쓰기를 바로잡으시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전체인민이 다 같이 공부 하고 무료로 치료 받으며 아무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정말좋은제도이다.

3. 다음문장에서 밑줄을 친 부분의 띄여쓰기를 왜 그렇게 하였는가를 설명하시오.

영호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또다시 최우등을 하며 무슨 일에서나 모범이 되겠다고 마음다졌다.

복 습

1. 다음글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그 까닭을 말하시오.

○ 세기의 가난을 털어 버리고
조선의 천리마 날아 오른다

○ 영희는 동생을 껴 안고 흥 겹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2. 다음문장들에서 관형사의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그 까닭을 말하시오.

○ 봄, 새 봄이 왔다. 새세대 우리들의 가슴에도 희망의 새 봄이 찾아왔다.

○ 온나라 어디가나 행복의 노래 넘친다.

○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찾아와 한결같이 하는 말은 여기가 바로 인민의 락원이라는것이다.

3. 다음문장들에서 부사의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그 까닭을 말하시오.

○ 온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원족을 갔던 날은 유난히맑게 개인 날이였다.

○ 이때 장수골할아버지의 말이 등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힘도 세야 하지만 슬기도 다 같이 있어야 하네. 산과 바다를 들어옮기는 힘이 있어도 슬기가 없이는 빛을 못내는 법이라네… 무슨 일이나 덤비지 말고 찬찬히깊이생각하노라면 슬기가 떠오르는 법이지. 물론 적을 치자면 힘이 있어야 하지만 그 힘도 슬기를 가져야 더큰 힘으로 되는거라네.》
… … …
그뒤 무쇠장군은 샛별장군을 본 받아 용맹과 슬기를 다갖춘 훌륭한 장군이 되였습니다.

4. 관형사와 부사를 5개씩 찾은 다음 그것으로 각각 한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시오.

29. 거듭인용표, 줄임표, 풀이표, 괄호, 꺾쇠괄호, 두점, 반두점은 어떤 때 치는가

다음문장들을 읽어보고 어떤 문장부호들이 씌였는가를 생각하여보자.

○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라고 부르고있습니다.》

○《땅, 땅, 뚜루룩…》항일유격대의 몰사격에 일제놈들은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 경철이는 순간 생각하였다.

(어떻게 할가?)

○ 〔장편소설 《1932년》(총서 《불멸의 력사》), 30페지〕

○ 금이와 은이는 5시—6시사이에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우의 문장들에는 인용표와 함께 거듭인용표(〈 〉), 줄임표(…), 괄호(( )), 꺾쇠괄호(〔 〕), 풀이표(—) 등이 씌였다.

그러면 이런 문장부호들을 어떤 때 치는가.

— 거듭인용표(〈 〉)는 어떤 때 치는가.

거듭인용표는 인용표안에 또 인용표를 쳐야 할 때 친다.

○ 《철이는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내 어려운 수학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냈습니다.》

— 줄임표(…)는 어떤 때 치는가.

줄임표는 단어나 문장이 줄어들었다는것을 나타낼 때 친다.

○ 《아니, 저 애가?…》

○ 《거 누구요?》

《…》

줄임표는 언제나 석점씩 쳐야 한다.

— 풀이표(—)는 어떤 때 치는가.

① 서로 같은 대상이나 갈라지는 대상사이에 친다.

○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압록강선수단—기관차선수단의 축구경기

② 《에서, 까지》나 《부터, 까지》를 나타낼 때 친다.

○ 평양—청진

아침—점심

— 괄호(())는 어떤 때 치는가.

①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말이 올 때 친다.

○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였다.(그날은 유난히도 맑게 개인 날이였다.)

○ 춘호는 오늘도 도서관으로 갔다.(그는 최우등생이다.)

② 인용문의 출처를 밝힐 때 친다.

○ (동시 《사랑의 그네》에서)

③ 속생각을 나타낼 때 친다.

○ 은주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어깨를 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웃음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 우리는 온 세상에 빛나는 장대재의 밝은 불빛, 조선의 밝은 불빛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원한 기쁨,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원한 웃음이 되겠습니다.)

④ 번호를 달 때에도 친다.

○ (1), (2), (3)

— 꺾쇠괄호(〔 〕)는 어떤 때 치는가.

① 인용표나 괄호를 한데 묶을 때 친다.

○ 〔《고난의 행군》(총서 《불멸의 력사》), 30페지〕

② 개별적인 단어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거나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려고 할 때 친다.

○ 결사대〔명사〕(품사를 밝힐 때)
당성〔당썽〕(발음을 밝힐 때)

○ 〔련습문제〕

— 두점(:)은 어떤 때 치는가.

두점은 뒤에 설명을 보라는 때 친다.

○ 열매의 종류: 실험조건: 주의: 물음: 대답: 김은덕동무의 토론:

— 반두점(;)은 어떤 때 치는가.

반두점은 문장안에 여러개의 반점(,)이 있는 경우 그것을 다시 묶어줄 때 친다.

○ 단위원회에는 단부위원장, 단위원들을 비롯한 단열성자들; 분단위원장, 분단위원들을 비롯한 분단열성자들; 그리고 모범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련습

다음 문장들에 필요한 문장부호들을 치시오.

○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불빛은 정말 아이들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다 보이는것 갈구나 성실이두 옥희두 영옥이두 나두 정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면 다 보이누나 가야금을 잘 타는 숙천의 향숙이 야영의 날 송도원모래터에서 사귄 창성의 꽃분이 그리구 궁전에 왔던 총련학교 별순이두
참으로 축복받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궁전의 지붕과 창가에 서서 온 세상을 향해 웃고있는것만 같았습니다.

○ 명호는 말하였다.
우리모두 학습도 생활도 항일아동단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학과학습도 소년단조직생활도 잘해나갑시다.

국어문법(중학교 제 2 학년용)

4 판

집 필 최준영, 서재길, 류병설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손수옥 편 성 손수옥

장 정 류명심 교 정 리분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3 판 발행 주체 98(2009)년 12 월 7 일

4 판 인쇄 주체 101(2012)년 5 월 2 일 4 판 발행 주체 101(2012)년 5 월 12 일

교-12-보-619 값 5 원